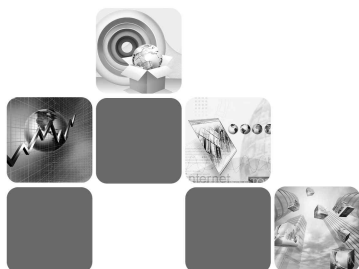


2022-5호

# 월간 ICT 산업 동향





# Contents

## I. 수출 동향 .....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D-TV     | ⑥ 컴퓨터 및 주변기기 |
| ⑦ 이차전지     | ⑧ SW         |

## II. 트레이드 GPS ..... 32

1. 프랑스 - 의료용기기 ..... 33
2. 실리콘 웨이퍼 ..... 40
3. Ex-Briefing ..... 45

## III. 부록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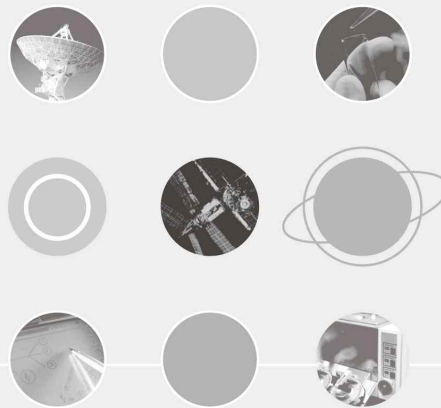
1. ICT 생산 통계 ..... 51
2. 2022년 4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 52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 59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7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 68





# I

## 수출 동향



# I 수출 동향<sup>1)</sup>

## 1 개요

□ '22.4월 ICT 수출은 199.4억 달러(16.9%↑), 수입은 121.3억 달러(12.4%↑) 기록

- (수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수출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16.9% 증가한 199.4억 달러를 기록하며 4월 기준 최대 규모 수출 실적 달성

※ 역대 4월 수출 순위(억 달러) : (1위 '22년) 199.4, (2위 '21년) 170.5, (3위 '18년) 170.3

-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 늘어난 반면 D-TV는 감소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미국·일본·EU·베트남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수출이 모두 증가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D-TV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 체
전세계	109.0 (16.0)	20.5 (22.5)	12.4 (0.6)	0.7 (△37.9)	17.6 (58.0)	199.4 (16.9)
중국(홍콩)	57.7 (2.0)	9.3 (5.1)	5.1 (40.9)	0.0 (△5.8)	4.9 (18.6)	83.6 (4.1)
미국	8.3 (22.9)	0.2 (△16.0)	0.8 (△73.9)	0.1 (120.4)	6.8 (92.1)	26.7 (25.9)
일본	1.2 (10.2)	0.1 (136.3)	0.1 (△22.5)	0.0 (66.5)	0.7 (130.1)	3.7 (15.5)
EU	2.1 (3.6)	0.3 (15.5)	3.8 (100.6)	0.2 (△17.1)	2.2 (61.6)	13.4 (23.2)
베트남	13.2 (34.2)	9.7 (45.1)	0.9 (△61.3)	0.1 (△53.0)	0.3 (183.7)	30.0 (25.8)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어난 121.3억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 지속
  - 휴대폰(6.4억 달러, △23.8%)은 감소했으나 반도체(56.9억 달러, 21.4%↑), 컴퓨터·주변기기(14.7억 달러, 7.3%↑), 디스플레이 (4.5억 달러, 49.6%↑) 등 주요 품목 수입이 증가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38.8억 달러), 미국(19.9억 달러), 베트남(19.3억 달러), EU(7.7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총 78.1억 달러 흑자를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2년		2021년	
		4월P	1~4월P	4월	1~4월
수출	전체 산업	576.9 (12.6)	2,306.0 (16.7)	512.3 (41.2)	1,976.3 (18.7)
	ICT	199.4 (16.9)	816.6 (23.7)	170.5 (32.5)	660.0 (18.0)
수입	전체 산업	603.5 (18.6)	2,372.2 (26.5)	508.9 (34.2)	1,875.0 (17.6)
	ICT	121.3 (12.4)	487.0 (16.8)	107.9 (21.7)	417.1 (19.7)
무역수지	전체 산업	△26.6	△66.2	3.3	101.4
	ICT	78.1	329.6	62.6	242.9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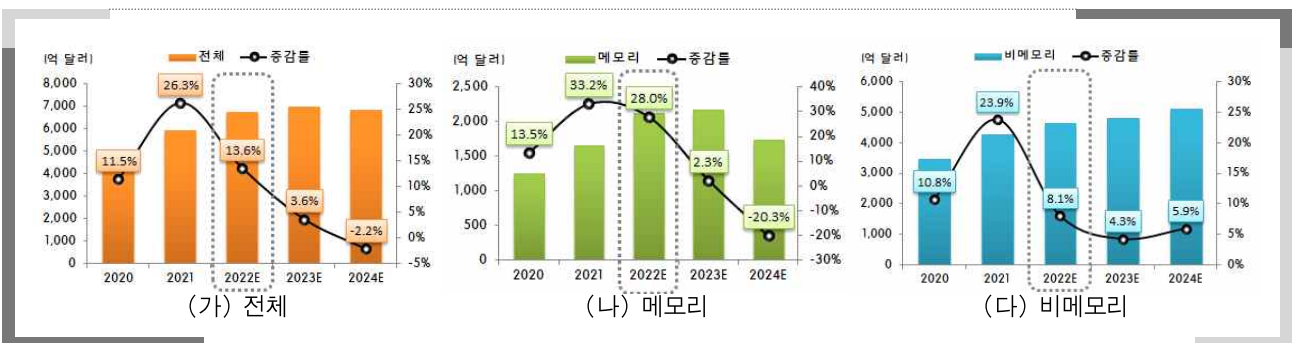
## 2 반도체

### 1) 수출 환경

#### □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방 산업에서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3년 연속 성장할 전망

- (시장 전망) 전방 수요 증가와 더불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2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6,76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Gartner, '22.3월)
  - '22년 반도체 시장은 비대면 및 신규 수요 확대 등에 따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10%대 이상의 고성장률로 '20년 이후 3년 연속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 다만 일각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전방 산업 수요가 둔화되면서 시장 성장폭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
  - (메모리 반도체 : 2,122억 달러, 28.0%↑) 데이터 센터 등 서버용 수요를 중심으로 선전하면서 두 자릿수의 고성장세 달성이 기대. 다만 일각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정체 및 하락이 예측(후술 참고)되는 등 '23년 이후 시장 성장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
  - (비메모리 반도체 : 4,638억 달러, 8.1%↑) 하반기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및 자율주행·전기차 등 차량용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그림 1-1 전체 및 품목별 반도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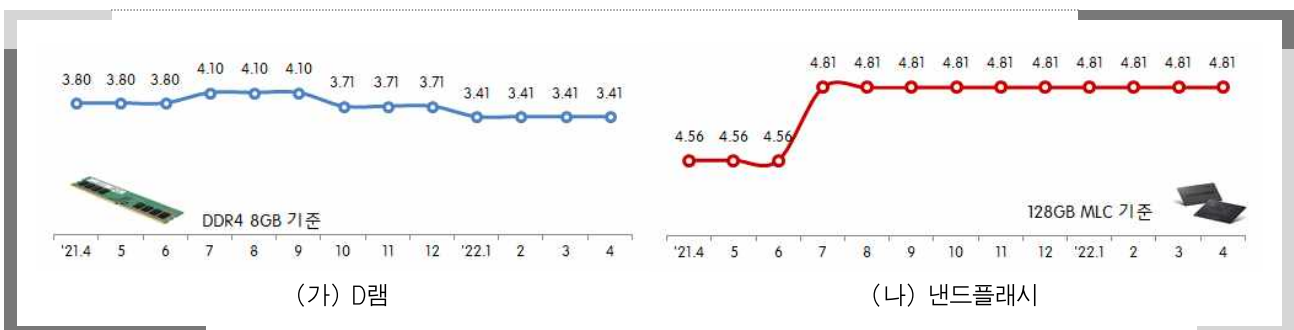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2.3.

#### □ 전방 수요가 감소하면서 메모리 가격은 하락이 우려되는 반면 파운드리 가격은 상승 전망

- 중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방 수요가 감소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의 선행 지표인 현물 가격이 하락하는 등 고정거래가격도 떨어질 것이란 전망 관측
  - '22.4월 고정거래가격은 D램이 '22.1월 이후 4개월 연속 3.41달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낸드플래시도 '21.7월 이후 10개월 연속 4.81달러로 동가를 유지하는 등 보합세(Dramexchange, '22.4월)

- D램의 경우 수급 균형보다는 가격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면서 동가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시장 위축과 더불어 노트북·태블릿PC 등 비대면 수요 감소 등에 따른 PC 수요 등이 줄어들면서 '22.2분기 0~5%의 가격 하락이 예측(TrendForce, '22.3월)
- 낸드플래시는 서버용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를 지속하면서 '22.2분기 5~10%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나 하반기 생산 업체의 사업 확장 기조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3분기에는 상승 폭이 0~5%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TrendForce, '22.5월)
  - ※ 삼성전자는 '21년 말 중국 시안 봉쇄로 낸드플래시 공장 가동이 일시 중단되면서 제품 생산 차질이 발생했으나 현재 생산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인텔의 낸드플래시 분야 인수 후 사업에 집중. YMTC도 '22.하반기 낸드플래시용 웨이퍼 투입을 늘리는 등 낸드플래시 생산 업체의 공급이 늘어날 전망
- 다만 낸드플래시 웨이퍼 가격은 '22.5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하반기에는 5~10% 수준에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TrendForce, '22.5월)되면서 향후 낸드플래시 가격에도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

**그림 1-2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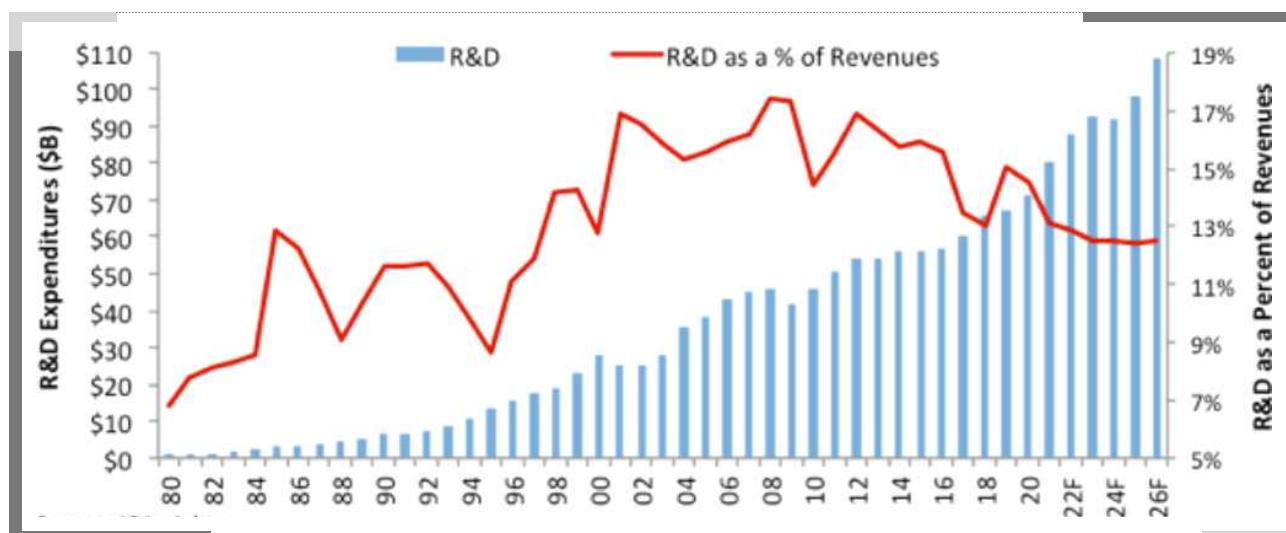
- 반면 파운드리 업체는 반도체 공급난에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따라 가격을 연이어 인상
  - (TSMC) '21.8월 10년 만에 가장 높은 폭인 최대 20%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22.3월에는 3분기부터 8인치(200mm) 파운드리 가격을 기존 대비 10~20% 올리기로 결정
  - 또한 '22.5월에는 최첨단 프로세서부터 저가형 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전력관리칩, 센서, 통신칩 등 전반적인 제품의 위탁생산 비용을 '23년부터 5%~8%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
  - (삼성전자) '22.하반기부터 파운드리 제품별(특히 레거시(구식) 공정 중심)로 15~20%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사와는 공급 가격 협상이 완료
  - (기타) 글로벌파운드리·SMIC 등 타 파운드리 기업들도 '21.하반기 10~20%의 가격 인상을 잇달아 단행하는 등 시장 선두 주자에 맞춰 후발주자들도 가격을 조정하는 양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
  -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 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여파로 원재료 및 물류비용이 급증하면서 파운드리 업체는 가격을 잇달아 인상하기로 결정.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최근 파운드리 업체의 대규모 신규 및 증설 투자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한 행보로도 분석



## □ 파운드리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R&D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지출도 확대

- 반도체 기업간 경쟁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연구 개발(R&D) 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텔·삼성전자·TSMC 등 파운드리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
  - '21년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R&D 지출은 7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 '22년에는 9% 증가한 805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연평균 5.5%의 성장률로 확대되면서 '26년에는 1,086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IC Insights, '22.5월)
  - 기업별로는 '21년 기준 인텔이 파운드리 재진출 선언 이후 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12% 증가한 15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지출의 약 19%를 차지해 1위를 달성. 인텔은 '24.하반기 1.8nm 제품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하며 투자를 확대
  - 이어 삼성전자는 경쟁을 위해 5nm 이하의 첨단 로직 프로세스에 대한 R&D 지출을 가속화하면서 전년 대비 13% 증가한 65억 달러를 R&D에 투자하며 2위를 차지. 삼성전자는 연내 차세대 기술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를 적용한 3나노 제품의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박차
  - TSMC는 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20년에도 전년 대비 26% 투자를 늘리는 등 과감한 투자로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격차 확대를 도모. 특히 TSMC는 '22.5월 업계 최초로 1.4nm 공정 개발 추진을 발표하는 등 기술 개발에 집중
  - 한편 매출 대비 R&D 지출 비중은 2000년 이후 5개년('00년, '10년, '17년, '18년, '20년)을 제외 하고 14.5%를 상회하는 등 늘어났으나 향후 비중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다만 이는 R&D 지출 감소보다는 매출 증가에 따른 비중 감소로 추정

그림 1-3 전세계 반도체 R&D 지출액 및 매출 대비 비중 추이



자료 : IC Insights 재인용, 2022.5.

## 2) 수출 동향

### □ 메모리 및 시스템 동반 성장으로 '22.4월 반도체 수출은 100달러대 수출을 지속

- **(품목별)** 비대면 환경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에 힘입어 시스템 반도체 최고 실적 및 메모리 반도체 호조로 '22.4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0% 증가한 109.0억 달러로 12개월 연속 100억 달러대를 유지
  - (메모리 반도체 : 63.8억 달러, 7.7%↑) 서버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면서 D램, 낸드플래시, 복합부품집적회로(MCOs) 등이 늘어나 20개월 연속 호조세를 지속
  - (시스템 반도체 : 40.1억 달러, 36.5%↑) 패키징·패리스 등 호조로 2개월 연속 40억 달러대를 상회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국내 업체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 등 주요 지역 수출이 증가
  - 중국(홍콩 포함, 57.7억 달러, 2.0%↑)은 D램, 낸드플래시 증가에도 불구하고 MCOs 급감으로 메모리 반도체(△1.4%)가 부진했으나 시스템 반도체(13.3%↑)가 선전하며 19개월 연속 증가
  - 베트남(13.2억 달러, 34.2%↑)은 시스템 반도체(30.2%↑)와 더불어 D램, MCOs,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117.5%↑)가 동반 호실적을 지속하면서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

**표 1-3 |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4	5	6	7	8	9	10	11	12	'22.1	2	3	4
반도체	94.0 (29.4)	101.1 (23.9)	112.3 (34.3)	110.3 (38.6)	117.6 (41.8)	122.3 (27.4)	112.3 (28.4)	120.9 (39.5)	128.4 (34.5)	108.9 (24.1)	104.5 (23.8)	132.0 (37.9)	109.0 (16.0)
메모리	59.3 (18.9)	65.7 (13.6)	75.4 (30.7)	71.4 (43.8)	76.4 (50.6)	79.5 (28.6)	69.5 (28.1)	76.4 (47.3)	84.1 (40.3)	64.8 (21.9)	63.3 (21.3)	82.0 (34.0)	63.8 (7.7)
D램	28.7 (5.1)	29.0 (2.2)	33.7 (14.3)	35.2 (39.8)	37.6 (55.1)	37.8 (28.7)	35.6 (41.1)	37.1 (56.1)	41.3 (64.6)	32.0 (34.3)	31.8 (40.1)	38.9 (44.3)	32.4 (12.9)
낸드	4.9 (△7.7)	5.9 (22.9)	6.0 (24.0)	4.9 (0.5)	5.7 (12.5)	6.6 (13.0)	6.3 (25.5)	6.2 (24.0)	6.4 (△5.8)	5.2 (6.8)	6.3 (36.9)	7.5 (68.8)	7.4 (51.0)
메모리 MCP	22.0 (52.2)	27.3 (28.9)	32.1 (68.5)	27.1 (72.2)	28.2 (58.9)	30.3 (34.3)	23.5 (19.8)	30.2 (57.6)	31.3 (31.3)	24.1 (16.4)	21.1 (△1.5)	30.5 (19.9)	19.8 (△9.9)
메모리 MCOs	3.6 (28.4)	3.4 (△1.7)	3.5 (△17.6)	4.0 (8.4)	4.7 (32.9)	4.7 (19.4)	3.9 (△7.3)	2.8 (△26.9)	4.9 (21.9)	3.4 (△6.4)	4.0 (20.3)	5.1 (19.1)	4.1 (15.3)
시스템 반도체	29.3 (59.0)	30.2 (55.7)	31.3 (46.5)	33.4 (35.8)	35.6 (31.2)	37.5 (31.7)	37.3 (32.3)	39.0 (31.1)	38.9 (30.1)	38.7 (33.0)	36.1 (33.9)	44.5 (53.5)	40.1 (36.5)
개별 소자	1.5 (34.7)	1.4 (29.4)	1.5 (22.0)	1.6 (13.7)	1.5 (19.5)	1.5 (2.4)	1.5 (4.1)	1.5 (△4.0)	1.5 (△1.3)	1.4 (△4.0)	1.4 (0.2)	1.6 (2.9)	1.5 (△3.5)
광전 소자	2.6 (24.4)	2.5 (13.2)	2.7 (23.8)	2.5 (△11.9)	2.6 (△2.4)	2.4 (△19.5)	2.5 (3.9)	2.5 (5.4)	2.5 (△14.7)	2.4 (△13.4)	2.0 (△23.1)	2.0 (△24.6)	2.0 (△20.7)

자료 : IITP, KTSPI





그림 1-4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4월 당월				1~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502.5	25.9	39.0	중국	41.2	17.0	37.8	144.2	43.0	41.7
2	홍콩	265.9	28.2	20.7	홍콩	16.5	-22.7	15.2	52.4	-7.2	15.2
3	베트남	140.3	21.9	10.9	베트남	13.2	34.2	12.1	42.8	42.8	12.4
4	대만	107.0	67.9	8.3	대만	10.8	40.4	9.9	30.9	37.4	8.9
5	미국	95.2	18.0	7.4	미국	8.3	22.9	7.6	23.0	16.1	6.7
6	싱가포르	38.3	48.5	3.0	싱가포르	5.0	67.2	4.6	13.1	67.3	3.8
7	필리핀	38.0	31.0	2.9	필리핀	3.7	49.5	3.4	10.0	34.7	2.9
8	말레이시아	16.5	22.7	1.3	인도	2.5	178.5	2.3	5.8	53.5	1.7
9	일본	13.9	28.9	1.1	말레이시아	1.4	15.3	1.3	4.3	20.6	1.3
10	인도	12.6	18.0	1.0	일본	1.2	10.2	1.1	3.4	16.7	1.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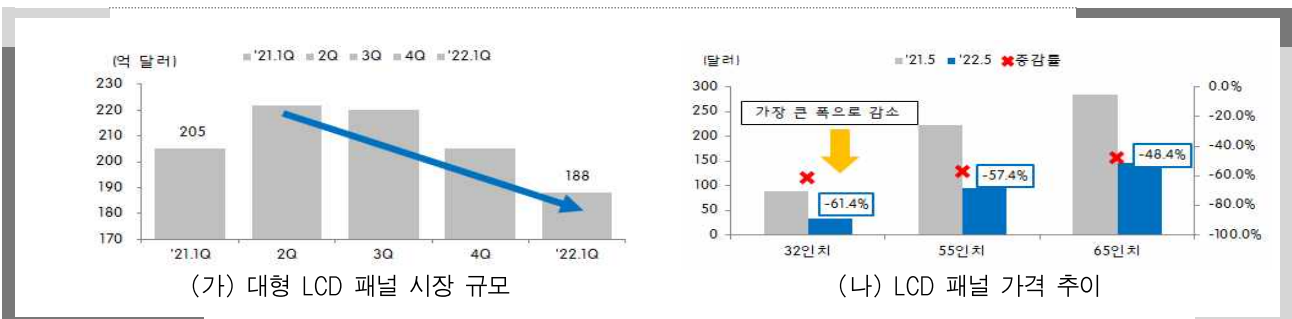
### 3 디스플레이 패널

#### 1) 수출 환경

#### □ '22.1분기 대형 LCD 패널 시장은 러·우 전쟁, 가격 내림세 지속 등으로 역성장

- (시장 규모 및 전망) 中 업체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LCD 패널 가격이 원가 수준으로 다시 하락하며 대형 LCD 패널 시장은 부진, 다만 고부가 OLED 패널 시장은 성장 전망
  - '22.1분기 대형 LCD 패널 시장(188억 달러, △8.3%)은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조치 장기화, 물류 대란, 전방 시장(TV 등)의 수요 둔화, 국내 업체의 생산 감축 등으로 하락 기록(OMDIA, '22.5월)
  - 한편 LCD 패널 가격은 1분기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中 패널 업체들의 공급 과잉 등으로 '22.5월(55인치 기준 95달러, 전년 대비 △57.4%) 급격한 내림세에 진입해 눈길
    - ※ 전방 산업의 역성장 전망 속에서도 '22.3월 中 패널 업체 HKC, 티안마, BOE는 2월 대비 각각 102.2%↑, 46.4%↑, 34.9%↑씩 패널 출하량을 확대
  - 반면 OLED 패널은 스마트폰, TV에 이어 모니터·노트북·태블릿PC 등의 IT기기로 응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시장 성장이 지속될 전망. 특히 노트북용 OLED 패널 시장(890만 대, 78%↑)은 올해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며 큰 폭 증가할 것으로 관측(OMDIA, '22.5월)
- (1분기 실적) SDC는 중소형을 중심으로 호실적을 시현, 반면 LGD는 전년 대비 하락
  - (삼성디스플레이, SDC) 대형 패널은 QD 패널 초기 비용, LCD 패널 가격 하락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중소형 패널은 스마트폰 판매 호조, 게이밍 등 신규 판매처 확대 등으로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매출액(7.97조 원, 15.2%↑)과 영업이익(1.09조 원, 202.8%↑) 성장을 견인
  - (LG디스플레이, LGD) LCD 패널 가격 하락세가 장기화된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 전방 산업 수요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매출액(6.47조 원, △6%)과 영업이익(0.03조 원, △93%)이 모두 하락

그림 1-5 대형 LCD 패널 시장 규모 및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



자료 : OMDIA, 2022.5.

## □ 美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SID 2022’에서 한층 더 진화한 OLED 신기술들이 대거 등장

- (국내 업체) 대형, 중소형으로 나뉘어 OLED 시장을 주도했던 각사는 서로 간의 주력 시장을 넘나들며 OLED 신기술 총공세를 펼쳐 주목
  - (삼성디스플레이) 기존 가로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과 달리 위로 밀어 화면이 넓어지는 6.7형 슬라이더블, 가로 양방향 확장이 가능한 12.4인치 슬라이더블 OLED, 게이밍용 폴더블 OLED, 7/12.3/15.7인치 자동차용 콕핏 OLED 등을 공개
  - 또한 '21년 말 양산을 시작해 본격 공급을 시작한 QD-OLED 디스플레이도 집중적으로 전시해 자사의 대형 OLED 패널에 관심을 유도. 55·65인치 TV용 패널, 34인치 모니터용 패널 등도 공개
  - (LG디스플레이) 대형 OLED 시장 강자인 동 사는 현존하는 OLED TV 패널 중 가장 큰 크기인 97인치 ‘OLED.EX’를 처음으로 공개해 주목. 중수소 기술과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이뤄진 EX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화면 밝기와 색감 등이 보다 정교하게 표현되는 점이 특징
  - 뿐만 아니라 중소형 신사업에도 힘을 주어 자유롭게 접고 구부릴 수 있는 42인치 벤더블 OLED, 양방향 폴딩이 가능한 8인치 폴더블 OLED, 세계 최대 크기의 차량용 P-OLED 34인치, AR·VR 기기용 0.42인치 올레도스(OLEDoS) 등을 공개하며 중소형 OLED 신기술을 대거 선보여 눈길
    - ※ 올레도스는 유리 기판이 아닌 실리콘 웨이퍼에 OLED를 적용한 마이크로 OLED로 메타버스용 AR·VR 기기에 가장 최적의 패널이 될 것으로 평가
- (중국 업체) 대형 OLED, 마이크로 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전시하며 기술력을 과시
  - (BOE) LG디스플레이가 선보인 97인치 다음으로 큰 크기의 95인치 8K OLED 패널을 전면에 내세운 데 이어 초대형 마이크로 LED 등을 전시. 다만 95인치 8K OLED 패널은 휘도(밝기)가 LG디스플레이 제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 일각에서는 대형 OLED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초대형 패널을 선보인 것으로 풀이
  - (CSOT) 세계 최초로 잉크젯 프린팅 공정 기술을 활용해 제조한 65인치 8K OLED 패널을 첫 공개. 스마트폰용 중소형 LTPO OLED도 전시하며 중소형 주요 시장 진입을 위한 포석을 마련

그림 1-6 | 각 사의 슬라이더블·폴더블·벤더블 패널 이미지



(가) SDC의 슬라이더블 제품 이미지



(나) LGD의 폴더블·벤더블 제품 이미지



자료 : 언론 자료 인용

## 2) 수출 동향

### □ '22.4월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22.5% 늘어난 20.5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LCD 패널, OLED 패널, 부분품 등의 수출 호조로 20개월 연속 성장 곡선을 유지
  - (LCD 패널 : 5.2억 달러, 5.4%↑) 라·우 전쟁,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LCD 패널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프리미엄 TV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로 4개월 연속 성장세
  - (OLED 패널 : 11.7억 달러, 38.8%↑) 기존 스마트폰, TV 등과 더불어 차량용, AR·VR 기기, IT기기 등으로 패널 수요처가 점차 확대되면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시현
  - (부분품 : 3.6억 달러, 6.6%↑) BLU(0.1억 달러, 10.5%↑)의 두 자릿수 성장, 편광판(2.5억 달러, 2.6%↑) 수출 호조 등으로 7개월 연속 증가
- **(지역별)**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베트남·중국·멕시코·헝가리 등) 수출 호조로 성장
  - 베트남(9.7억 달러, 45.1%↑)은 LCD 패널(0.9억 달러, 78.2%↑), OLED 패널(8.3억 달러, 45.9%↑), 부분품(0.5억 달러, 0.5%↑) 등 전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 중국(홍콩 포함, 9.3억 달러, 5.1%↑)은 LCD 패널(3.9억 달러, △3.2%) 수출이 감소했으나 OLED 패널(2.9억 달러, 14.0%↑), 부분품(2.5억 달러, 9.7%↑) 수출 증가로 성장
  - 멕시코(0.3억 달러, 34.7%↑)는 부분품(0.2억 달러, 10.4%↑) 수출 호조, LCD 패널(0.08억 달러, 90.3%↑) 및 OLED 패널(0.02억 달러, 317.5%↑)의 고성장 등으로 6개월 연속 상승

**표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4	5	6	7	8	9	10	11	12	'22.1	2	3	4
패널	16.7 (35.0)	17.8 (38.6)	19.5 (29.7)	20.9 (34.8)	22.1 (22.4)	24.4 (15.7)	22.4 (5.8)	24.3 (11.3)	24.7 (3.1)	23.5 (13.3)	22.5 (39.3)	24.5 (45.3)	20.5 (22.5)
LCD	5.0 (12.9)	4.8 (7.0)	4.7 (△2.9)	5.2 (△5.4)	4.8 (△7.1)	4.9 (△11.3)	5.1 (△3.7)	5.5 (2.3)	5.6 (△8.3)	5.4 (1.8)	5.2 (15.9)	6.1 (24.2)	5.2 (5.4)
OLED	8.4 (57.5)	9.7 (64.1)	11.2 (61.2)	12.2 (89.6)	14.0 (47.3)	16.2 (33.1)	13.9 (8.7)	15.3 (14.0)	15.3 (6.2)	14.0 (14.4)	13.1 (56.3)	14.2 (69.0)	11.7 (38.8)
부분품	3.3 (25.8)	3.3 (34.6)	3.6 (11.1)	3.6 (△1.4)	3.3 (△2.2)	3.3 (△2.9)	3.3 (10.0)	3.5 (15.7)	3.7 (10.6)	4.1 (28.0)	4.2 (27.9)	4.2 (18.1)	3.6 (6.6)

자료 : IITP, KTSPI



그림 1-7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5.3	23.8	50.8	베트남	9.7	45.1	47.2	44.9	39.6	49.3
2	중국	102.1	15.4	41.4	중국	8.8	2.9	42.8	37.0	14.6	40.6
3	홍콩	5.1	31.9	2.1	홍콩	0.5	63.0	2.6	2.3	63.1	2.6
4	멕시코	2.6	26.7	1.0	멕시코	0.3	34.7	1.4	1.6	131.9	1.8
5	미국	2.2	0.6	0.9	인도	0.3	74.5	1.3	1.0	116.2	1.1
6	인도	1.1	50.4	0.5	미국	0.2	-16.0	0.9	0.7	-16.7	0.7
7	일본	1.0	-22.7	0.4	일본	0.1	136.3	0.6	0.5	106.6	0.6
8	헝가리	0.8	42.1	0.3	헝가리	0.1	204.5	0.6	0.8	251.2	0.8
9	대만	0.6	-7.8	0.3	말레이시아	0.1	229.6	0.5	0.2	81.1	0.3
10	폴란드	0.6	-15.6	0.2	대만	0.1	13.0	0.3	0.2	7.7	0.2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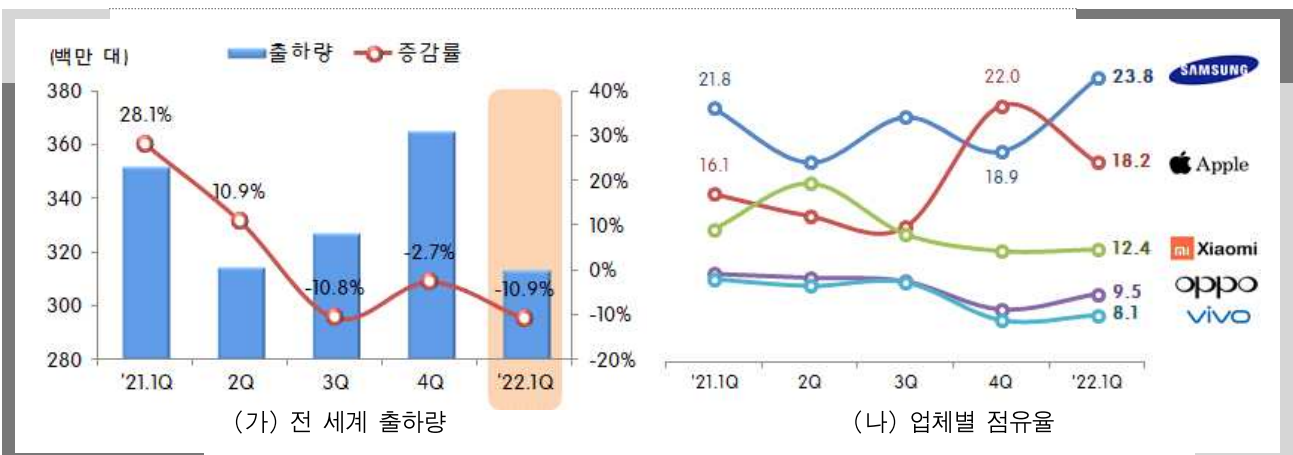
## 4 휴대폰

### 1) 수출 환경

#### □ '22.1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수요 부진으로 반락한 가운데 상위 업체 점유율은 확대

- (전체) '22.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공급 제약과 더불어 시장 위축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9% 줄어든 3억 1,350만 대로 3분기 연속 하락(SA, '22.4월)
  - 반도체 등 부품품 부족 지속으로 인한 생산 제약으로 스마트폰 공급이 제한됐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인 문제 등으로 시장 수요가 부진하면서 종전 분기 대비 하락폭은 두 자릿수로 확대
  - 한편 '22.하반기에는 부품 부족 및 지정학적 갈등 등 시장 성장 저해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면서 연간 13억 7,860만 대를 출하하며 전년 대비 성장세(1.5%↑)로 개선될 전망(SA, '22.3월)
    - ※ '22.3월 전망 기준 '22.1분기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11.2%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출하량은 10.9% 감소에 그치며 예측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SA, '22.3월)
- (업체별) 삼성전자가 상반기 신제품 선전 등으로 애플을 제치고 시장 1위를 재탈환 한 가운데 애플도 프리미엄 라인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선전(SA, '22.4월)
  -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신제품 '갤럭시S22 시리즈' 및 '갤럭시A 시리즈' 판매 호조로 7,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23.8%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다시 탈환. 특히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2%p 증가했으며 전분기 대비 4.9%p 증가하며 선전
    - ※ 삼성전자는 미국과 일본 스마트폰 시장 등에서 선전하며 점유율을 확대(후술 참고)

그림 1-8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자료 : SA 재인용, 2022.4.



### ○ (참고) '22.1분기 주요 국가별 삼성전자 점유율

- (미국)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25%) 대비 3%p 증가한 28%를 기록했으며 '14.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점유율을 달성. 한편 애플의 점유율은 47%로 선두를 수성했으나 전년 동기(54%) 대비 7%p 축소되면서 양사간 격차는 29%p에서 19%p로 축소(카운터포인트리서치 재인용, '22.5월)
- (일본) 삼성전자는 13.5%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13.1분기(14.1%)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샤프(9.2%)를 4.3%p 차로 제치고 2위로 등극. 특히 '22.1분기 일본 스마트폰 시장 내 모든 제조업체의 판매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판매량이 상승(SA 재인용, '22.3월)
- 이는 일본 내 5G 단말기 수요 증가와 함께 다양한 5G 스마트폰 라인업을 갖춘 삼성전자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선전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일본 수요를 확보하며 시장 입지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

- (애플)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5,700만 대를 출하하며 상위 업체 중 유일하게 성장률이 증가했으나 점유율은 18.2%를 기록하며 삼성전자에 밀려 시장 2위로 하락. 다만 '아이폰13 시리즈' 중 고가 라인업 판매가 늘어나면서 사상 두 번째로 높은 ASP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
- (중화권 업체) 샤오미·오포·비보 등은 중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이은 봉쇄 조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주요 시장에서 수요가 위축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으며 점유율도 전년 동기 대비 축소

## □ 중국, 봉쇄령으로 자국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한 가운데 현지 업체는 감산에 돌입

-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의 여파로 '22.3월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중국 현지 스마트폰 판매가 축소(중국정보통신원, '22.5월)
  - '22.3월 중국 휴대전화(스마트폰 및 피쳐폰 포함, 스마트폰 비중 98%) 시장 출하량은 2,15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5% 감소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 위축이 발생
  - 이는 '22.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정부가 실시한 주요 도시 봉쇄 정책이 연장 및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중심이 민생·방역물자로 이동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
  - 이 같은 소비 성향 변화로 자국 내 스마트폰 구매 수요가 지연되면서 '22.2분기 출하량도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년 이후 최저 실적이 될 것으로 예상
-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공급망 붕괴와 더불어 판매 수요까지 감소하면서 자국 및 현지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목표 생산량 조정에 나서는 등 타격
  - 샤오미는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 여파로 연간 목표 생산량 달성이 어려워지면서 목표치를 기존 2억 대에서 1억 6,000만~1억 8,000만 대로 줄이기로 결정

- 비보, 오포도 소매점을 중심으로 재고가 증가하면서 '22.2~3분기 부품 주문량을 기존 대비 약 20% 줄이기로 결정. 특히 비보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수요 감소를 고려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부 중저가 모델에 들어가는 주요 사양에 대한 업데이트도 중단한다고 발표
- 한편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애플도 최대 위탁업체인 폭스콘의 선전 공장 및 전체 제품 생산의 20~30%를 차지하는 페가트론·콤포의 쿤산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발생

## 2) 수출 동향

### □ 완제품 하락에도 부분품이 증가하며 '22.4월 휴대폰 수출은 소폭의 성장세 달성

- **(품목별)** '22.4월 휴대폰 수출은 완제품의 소폭 하락에도 부분품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0.6% 늘어난 12.4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성장세 지속
  - (휴대폰 완제품 : 5.7억 달러,  $\Delta 0.6\%$ ) 상반기 신제품 출시(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 '22.2.25일 출시 등)와 더불어 일부 해외 생산 라인의 국내 이전 등으로 선전했으나 다른 국내 기업의 스마트폰 사업 중단과 더불어 스마트폰 시장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1.하반기 베트남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스마트폰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는 삼성전자는 안정적인 제품 생산 및 공급을 고려해 '22.2월 베트남 생산 라인 일부를 구미로 이전
  - (휴대폰 부분품 : 6.8억 달러,  $1.6\% \uparrow$ ) RFIC, 카메라 모듈, PCB, eMMC 등이 감소했으나 3D 센싱 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10개월 연속 성장세 달성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5.0억 달러,  $45.9\% \uparrow$ ), 베트남(0.9억 달러,  $\Delta 61.6\%$ ), 인도 (0.1억 달러,  $79.6\% \uparrow$ )
- **(지역별)** 베트남·미국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EU 등은 증가 달성
  - 중국(홍콩 포함, 5.1억 달러,  $40.9\% \uparrow$ )은 완제품( $\Delta 49.1\%$ )이 하락했으나 3D 센싱 모듈, 카메라 모듈 등 부분품( $45.9\% \uparrow$ )이 늘어나면서 '20.10월 이후 19개월 연속 성장세를 지속
  - EU(3.8억 달러,  $100.6\% \uparrow$ )는 부분품( $\Delta 44.0\%$ )이 부진했으나 국내 기업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완제품( $123.6\% \uparrow$ ) 수출이 급등하며 세 자릿수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 베트남(0.9억 달러,  $\Delta 61.3\%$ )은 우리나라 기업이 공급망 리스크 축소를 위해 현지 생산 라인 일부를 국내로 이전하면서 완제품( $\Delta 17.9\%$ )과 더불어 카메라 모듈, RFIC, PCB, eMMC 등 관련 부분품 ( $\Delta 61.6\%$ )이 동반 하락했으며 전체적으로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 미국(0.8억 달러,  $\Delta 73.9\%$ )은 부분품( $99.6\% \uparrow$ ) 선전에도 완제품( $\Delta 83.9\%$ )이 부진하면서 하락



표 1-7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4	5	6	7	8	9	10	11	12	'22.1	2	3	4
휴대 단말기	12.4 (89.7)	10.4 (42.9)	8.7 (△2.0)	9.6 (1.2)	11.8 (67.5)	12.1 (19.3)	13.8 (17.3)	14.7 (16.9)	13.4 (4.7)	10.1 (△15.4)	9.8 (△4.9)	15.1 (36.8)	12.4 (0.6)
완제품	5.7 (89.4)	4.1 (20.7)	3.9 (5.5)	3.9 (0.6)	3.9 (99.2)	3.3 (0.8)	4.0 (8.9)	4.3 (6.4)	3.7 (18.4)	1.3 (△67.2)	2.7 (△37.0)	7.7 (75.3)	5.7 (△0.6)
부분품	6.7 (90.0)	6.2 (62.7)	4.8 (△7.3)	5.7 (1.5)	7.9 (55.2)	8.8 (28.1)	9.7 (21.2)	10.4 (21.8)	9.7 (0.2)	8.8 (9.0)	7.1 (18.3)	7.4 (11.5)	6.8 (1.6)

자료 : IITP, KTSPI

그림 1-9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8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4월 당월				1~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	49.5	70.2	35.4	중국	5.0	50.1	40.1	18.3	79.2	52.4
2	베트남	29.4	-7.9	21.0	독일	1.0	94.2	8.2	1.3	-1.6	3.7
3	미국	24.5	-2.0	17.5	영국	0.9	95.4	7.4	1.4	-8.8	3.9
4	영국	5.3	36.6	3.8	베트남	0.9	-61.3	7.3	2.6	-64.9	7.4
5	독일	4.8	76.4	3.4	오스트리아	0.8	151.2	6.8	1.1	256.7	3.1
6	홍콩	3.8	0.1	2.7	미국	0.8	-73.9	6.3	3.8	-39.1	11.0
7	인도	3.3	192.3	2.4	네덜란드	0.5	228.6	4.1	0.7	57.9	1.9
8	일본	2.2	9.0	1.6	스웨덴	0.4	112.2	3.5	1.0	63.6	2.1
9	프랑스	2.0	149.6	1.4	프랑스	0.3	113.4	2.8	0.8	93.0	1.7
10	오스트리아	1.9	467.0	1.4	이탈리아	0.3	132.2	2.6	0.3	247.8	1.0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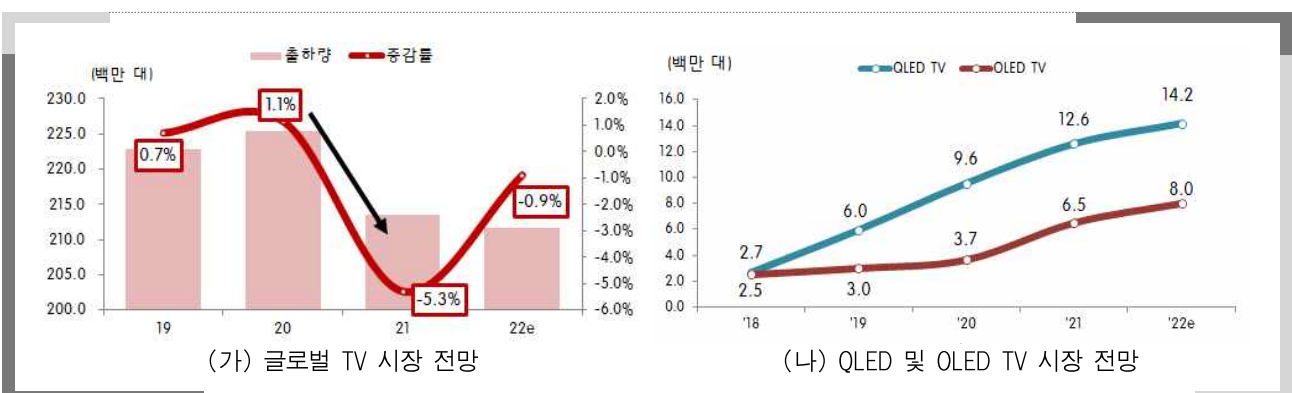
## 5 D-TV

## 1) 수출 환경

□ '22년 TV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 라우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축 등으로 다소 침체될 전망, 다만 프리미엄 TV 시장은 성장 지속

- (시장 전망) 올해 하반기 스포츠 이벤트, 계절적 성수기 등의 호재가 존재하나 전쟁에 따른 물가 급등, 공급망 문제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
  - '22년 TV 시장(2억 1,163만 대,  $\Delta 0.9\%$ )은 코로나19가 점차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TV 시장 성장을 이끌던 비대면 수요가 약화될 것으로 관측. 상반기 지정학적 이슈, 글로벌 물류대란 등의 악재가 지속되며 '10년(2억 1,000만 대)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
  - 다만 이러한 역성장 전망 속에서도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프리미엄 QLED TV(1,420만 대,  $12.7\% \uparrow$ ), OLED TV 시장(800만 대,  $22.5\% \uparrow$ )은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
  - ※ '22년 OLED TV는 1,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조선비즈, 5.6일)
- (1분기 실적) 글로벌 TV 시장 정체 속에서도 국내 업체들은 매출 증가세를 실현해 눈길
  - (삼성전자) 초대형·QLED TV 등을 확대 판매해 DX(Device eXperience) 사업 본부의 VD 부문 매출액(8.72조 원,  $21\% \uparrow$ )이 증가. 다만 계절적 비수기, 기저효과, 라우 전쟁 영향, 중국 업체로부터의 패널 매입비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가전 포함, 0.8조 원,  $\Delta 28.6\%$ )은 전년 대비 감소
  - (LG전자) 북미·유럽 등지의 전반적인 TV 수요 감소에도 초대형·OLED TV 등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로 HE사업본부 기준 매출액(4.06조 원,  $1.4\% \uparrow$ )이 소폭 증가. 영업이익(0.2조 원,  $\Delta 52.3\%$ )은 마케팅 비용, 자원 투입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

그림 1-10 | 글로벌 및 QLED 및 OLED TV 시장 전망



자료 : 조선일보, 5.6일, 원소스 OMDIA / OMDIA, 2021.11.



## □ 비우호적인 시장 여건 속에서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예정

- 글로벌 업체들은 QNED TV, OLED TV, 마이크로 LED 등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을 확장
  - **(LG전자)** '22.4월 말부터 한국·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에 '22년형 QNED TV를 순차적 출시. 일반 LCD 패널에 고색재현 독자 기술인 '퀀텀닷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있으며 미니 LED TV보다도 저렴한 점이 특징
  - 또한 해당 제품은 퀀텀닷과 나노셀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첫 TV이며 기존 65·75·86인치에 올해 처음으로 55인치 라인업도 추가한 점에 눈길
  - 한편 LG전자는 美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中 TCL을 상대로 TV 기술(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상 음향처리, 와이파이 관련 기술 등 6가지)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4.25일)
  - 이전에는 TCL이 LG전자의 특허 사용을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TV를 제조·판매하였으나 '18.11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갱신 협상 등에 응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LG전자 기술을 사용
    - ※ 앞선 '19.11월에도 美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中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으며 해당 소송은 '21.3월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 이에 동 사는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며 기술 보호에 전력을 투구. 일각에서는 중국 기업의 위협적인 추격을 견제하고자 잇단 소송전을 벌이는 것으로 관측
    - ※ 업계에 따르면 TCL의 '22년 TV용 패널 확보 예상치는 LG전자(3,430만 대)의 계획보다 220만 대 많은 3,650만 대로 전망돼 LG전자의 TV 시장 2위 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관측
  - **(삼성전자)** '22.5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상업용 마이크로 LED 생산을 개시해 눈길. 기존에는 네오 QLED TV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지였으나 코로나19 이후 마이크로 LED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22년 초 슬로바키아 공장 내 마이크로 LED 라인을 증설기로 결정
    - ※ 삼성전자는 '18년 첫 상업용 마이크로 LED '더 월'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
  - 하반기부터는 멕시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상업용 마이크로 LED를, 베트남 공장에서는 '20년 공개했던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전담해 생산할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
    - ※ '20년부터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를 본격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생산 이슈가 발생해 제품 출하가 부진
  - 또한 OLED TV 비중이 가장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QD-OLED TV 판매 확대를 예고하며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집중
  - **(소니)** '22.6월 QD-OLED TV인 55·65인치 '브라비아 A95K'를 미국에 우선 출시할 계획. '22.3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QD-OLED TV보다 약 800달러(55인치 기준) 비싼 2,999달러로 책정
    - ※ 운영 체제도 삼성전자는 인텔과 함께 만든 타이젠<sup>2)</sup>을 적용했으나 소니는 안드로이드를 채택
  - 이외에도 65·85인치 미니 LED TV 'X95K', 42·48인치 OLED TV 'A90K' 등으로 올해 라인업을 확대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도모

2) 모바일, 웨어러블, TV 등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는 범용 운영 체제로 삼성전자와 인텔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타이젠 연합에서 개발



## 2) 수출 동향

### □ '22.4월 TV 수출은 부분품 수출 감소 등으로 0.7억 달러(△37.9%)를 기록

- **(품목별)** LCD TV, OLED TV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분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9개월 연속 1억 달러대를 하회
  - (LCD TV : 0.05억 달러, 86.2%↑) 초대형·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57.8%↑)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성장 곡선을 유지
  - (OLED TV : 0.03억 달러, 77.2%↑) 장기간 부진한 성적이 지속됐으나 미국(2,150%↑), 네덜란드(271.8%↑) 등으로의 수출 호조로 반등 시현
  - (부분품 : 0.6억 달러, △42.9%) 주요 해외 생산 거점인 폴란드의 반락, 멕시코·베트남 등의 수출 하락세로 5개월 연속 역성장을 지속. 한편 러시아행 선적 중단 등으로 對러시아 TV 부분품 수출(891달러, △99.5%)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관측
- **(지역별)** 인도네시아·미국 등으로의 수출은 호조세가 지속되나 폴란드·멕시코·베트남 등이 감소하면서 전체 TV 수출은 하락 지속
  - 폴란드(0.2억 달러, △18.7%)는 부분품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5개월 만에 반락. 반면 유럽 지역의 또다른 생산 거점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182.4%↑)는 4개월 연속 고성장을 지속
  - 북미 지역의 핵심 거점인 멕시코(0.1억 달러, △71.9%)는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1,000만 달러대를 겨우 웃도는 수준을 기록
  - 인도네시아(0.1억 달러, 203.7%↑)는 부분품 수출 호조 등으로 3개월 연속 세 자릿수 성장을 시현
    - ※ 對러시아 TV 수출 추이 : '22.1월(254만 달러, △6.5%), 2월(204만 달러, △0.7%), 3월(59만 달러, △74.8%), 4월(0.009만 달러, △99.5%)

**표 1-9 D-TV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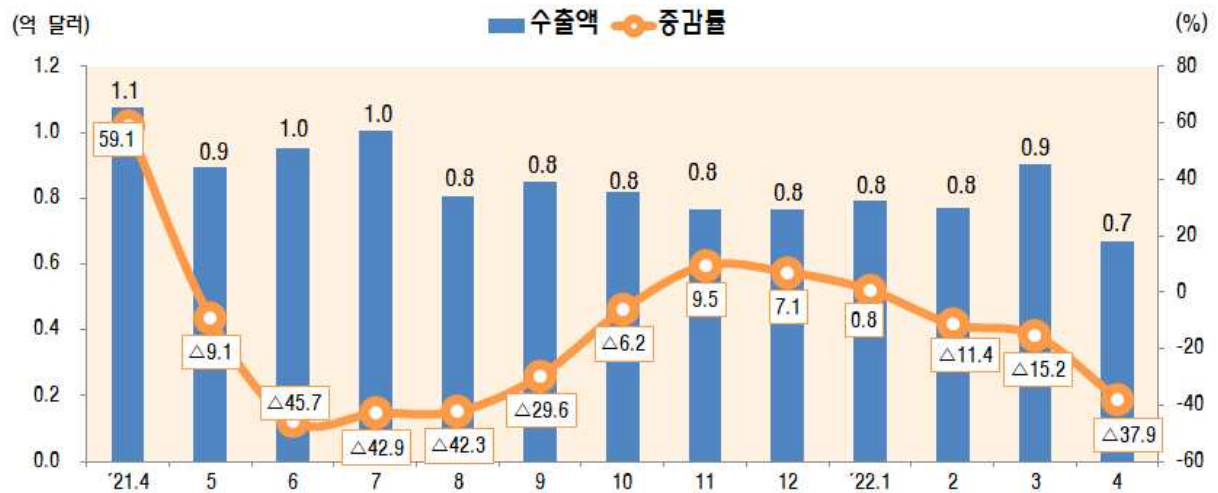
구분	'21.4	5	6	7	8	9	10	11	12	'22.1	2	3	4
D-TV	1.1 (59.1)	0.9 (△9.1)	1.0 (△45.7)	1.0 (△42.9)	0.8 (△42.3)	0.8 (△29.6)	0.8 (△6.2)	0.8 (9.5)	0.8 (7.1)	0.8 (0.8)	0.8 (△11.4)	0.9 (△15.2)	0.7 (△37.9)
LCD TV	0.0 (△88.0)	0.0 (△89.5)	0.0 (△86.7)	0.0 (△85.6)	0.0 (△82.0)	0.0 (52.4)	0.0 (16.4)	0.0 (213.2)	0.1 (456.2)	0.0 (108.5)	0.1 (135.5)	0.0 (100.7)	0.0 (86.2)
OLED TV	0.0 (△84.3)	0.0 (△80.0)	0.0 (△92.9)	0.0 (△91.8)	0.0 (△85.9)	0.0 (△94.7)	0.0 (△96.3)	0.0 (△11.9)	0.0 (189.8)	0.0 (13.5)	0.0 (△26.9)	0.0 (△83.6)	0.0 (77.2)
부분품	1.0 (196.3)	0.9 (16.7)	0.9 (△33.7)	1.0 (△33.2)	0.8 (△36.4)	0.8 (△25.5)	0.8 (8.2)	0.7 (7.0)	0.7 (△1.7)	0.7 (△2.3)	0.7 (△15.0)	0.8 (△17.0)	0.6 (△42.9)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D-TV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0 D-TV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멕시코	4.0	18.7	37.7	폴란드	0.2	-18.7	23.1	0.8	31.4	26.3
2	폴란드	1.9	33.1	17.4	멕시코	0.1	-71.9	18.8	0.7	-53.4	21.6
3	베트남	1.0	-37.0	9.8	인도네시아	0.1	203.7	15.9	0.4	169.5	13.2
4	브라질	0.6	-41.1	5.8	미국	0.1	120.4	12.1	0.2	48.6	7.4
5	인도네시아	0.6	21.3	5.2	베트남	0.1	-53.0	9.2	0.2	-37.2	7.6
6	미국	0.5	10.3	4.3	중국	0.0	56.1	3.9	0.1	96.9	3.5
7	이집트	0.3	-55.1	2.9	브라질	0.0	-68.5	2.1	0.1	-42.7	4.5
8	러시아연방	0.3	-24.5	2.8	홍콩	0.0	-58.2	1.2	0.0	-5.7	1.2
9	인도	0.3	-50.4	2.4	인도	0.0	-31.2	1.1	0.0	-46.9	1.3
10	중국	0.2	-34.7	2.0	슬로바키아	0.0	182.4	1.0	0.0	285.3	0.5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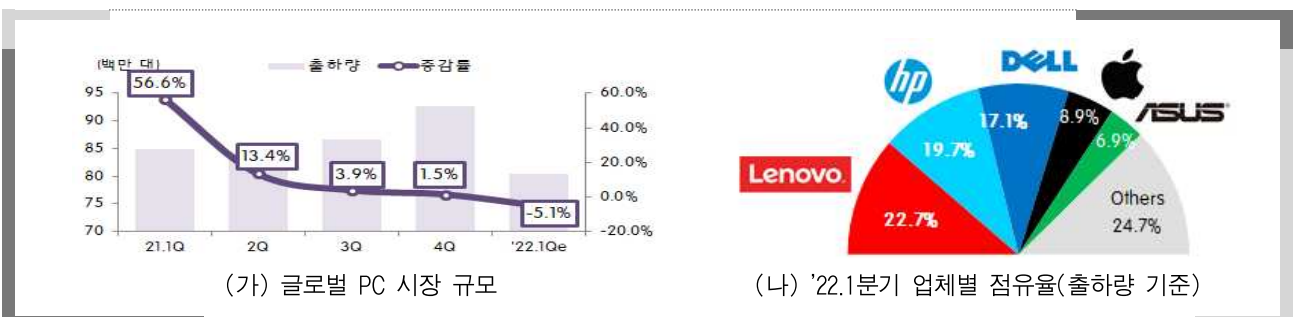
## 6 컴퓨터 및 주변기기

### 1) 수출 환경

□ (PC) 올 1분기 시장은 대내외적인 악재 등으로 감소, 다만 예상외로 선방했다는 평가도 상존

- (시장 규모) '22.1분기 PC 시장(8,050만 대, △5.1%)은 7분기 연속 8,000만 대를 상회
  - 지난 2년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했던 PC 시장은 올해 1분기 교육용·소비자용 PC 수요 둔화, 반도체 부족, 러·우 전쟁에 따른 물류 문제, 전년 동 분기의 기록적인 출하량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하락할 전망
  - 다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상업용 PC 수요 견조세 등으로 '12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7분기 연속 8,000만 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다시 한 번 달성해 주목
    - ※ 시장조사기관 IDC는 1분기 시장이 감소하긴 했으나 8,000만 대 이상의 PC 출하량이 유지된 점을 강조하며 PC 시장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
- (경쟁 현황) Lenovo, HP 등은 하락했으나 Dell, Apple 등은 성장을 지속하며 상위권을 유지
  - '22.1분기 Lenovo(1,830만 대, △9.2%)는 22.7%의 점유율로 1위를 고수하였으나 중국의 강력한 봉쇄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행 PC 출하량 축소 등으로 감소
    - ※ Lenovo의 신제품 발표회도 부품 수급난 등으로 기존 '22.4월 말보다 2주가량 지연 개최된 점도 눈길
  - 2위(19.7%)인 HP(1,580만 대, △17.8%) 또한 두 자릿수 감소를 보이며 8분기 만에 1,600만 대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 기록
  - 다만 Dell(1,370만 대, 6.1%↑), Apple(720만 대, 4.3%↑), ASUS(550만 대, 17.7%↑)는 상위 1, 2위 업체와 달리 성장을 보이며 각각 8.9%, 6.9%, 6.8% 점유율로 3, 4, 5위를 차지
    - ※ 한편 Apple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中 상하이 협력 업체 콤팩트컴퓨터(전체 맥북 생산량의 20%를 차지)의 생산 중단으로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모습('21.3Q 9.9%↑, 4Q 8.6%↑)

그림 1-12 | 글로벌 PC 시장 규모 및 '22.1분기 업체별 점유율(출하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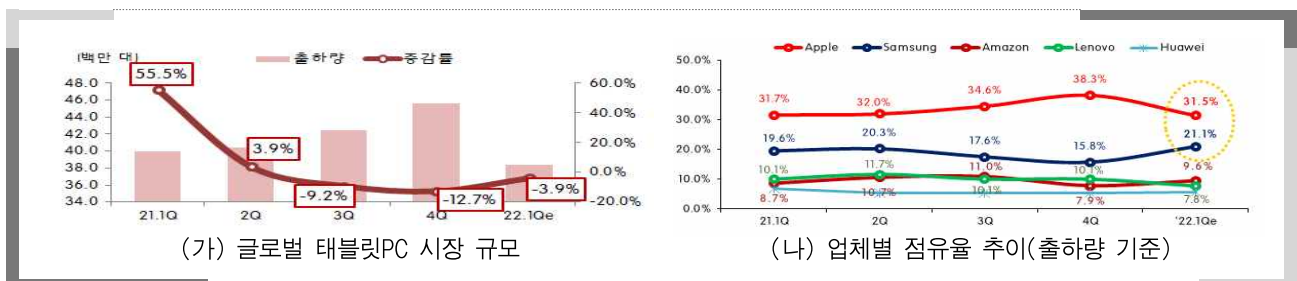


자료 : IDC, 2022.4.

## □ (태블릿PC)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등에 따른 비대면 수요 감소로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

- (시장 규모) '22.1분기 글로벌 태블릿PC 시장(3,840만 대, △3.9%)은 하락 지속
  - 올해 1분기 글로벌 태블릿PC 시장은 지난 2년간의 폭발적인 구매력으로 시장이 빠르게 포화 상태에 접어들면서 3분기 연속 하향세를 기록
  -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주요국들의 이동제한조치 규제 완화 등으로 주 성장 요소였던 비대면 수요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태블릿PC 시장의 하락 흐름은 지속될 전망
    - ※ '22.1분기 태블릿PC 출하량은 팬데믹 이전인 '19.1Q(3,017만 대, △4.7%) 대비 27.3% 증가
  - 일각에서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태블릿PC 시장이 본격 성숙기 국면에 재진입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 오포, 샤오미 등과 같은 中 스마트폰 업체가 태블릿PC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어 눈길
    - ※ 中 스마트폰 업체들은 '리얼미패드 미니('22.4월)', '오포패드('22.3월)', '샤오미패드 5('22.4월)' 등의 태블릿PC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전선에 진입. 다만 아직까지는 판매량이 미약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관측
- (경쟁 현황)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봉쇄 조치로 '22.1분기 상위 1, 2위 업체 간 격차가 축소된 데 이어 3, 4위 간 순위 변동이 발생해 눈길
  - Apple(1,210만 대, △4.6%)은 1위를 수성하고 있으나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 분기 점유율 대비 6.5%p 하락한 31.5% 수준에 그친 것으로 관측
  - 삼성전자(810만 대, 3.5%↑)는 제품 판매 호조 등으로 3분기 만에 다시 20%대의 점유율을 돌파 하며 반등 기록. 1위와의 격차도 상당히 좁히며 2위를 차지
  - 아마존(370만 대, 6.3%↑)은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타격을 받은 Lenovo(300만 대, △25.9%)를 제치고 9.6% 점유율을 차지하며 2분기 만에 3위를 재탈환
  - 한편 구글은 5.11일 개최된 美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동 사의 첫 태블릿PC '픽셀태블릿' 외관을 공개하며 '23년 내 출시를 예고. 해당 제품에는 구글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시스템온칩 (SoC)인 '텐서 칩'이 탑재될 예정

그림 1-13 | 글로벌 태블릿PC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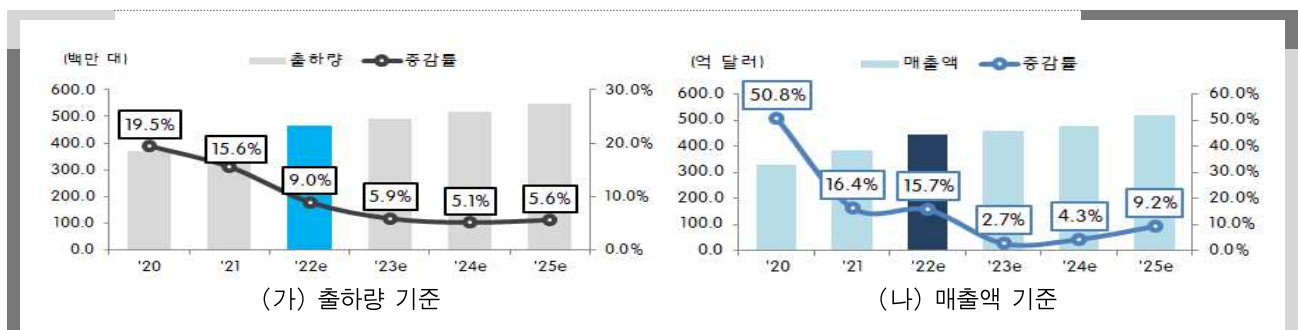


자료 : IDC, 2022.4.

## □ (SSD) '22년 SSD 시장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산업 발달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시장 전망) 올해 전 세계적인 데이터 사용 급증 흐름에 따라 출하량(4억 6,426만 대, 9.0%↑), 매출액(446억 달러, 15.7%↑)이 모두 상승 전망, 동반 상승 기조는 3년 연속 지속되는 양상
  - 글로벌 SSD 시장은 '20년(3억 6,865만 대, 19.5%↑)부터 '25년(5억 4,605만 대, 5.6%↑)까지 연평균 8.2%의 성장률로 견고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IDC, '21.12월)
    - ※ 매출액도 동 기간 331.2억 달러 → 521.5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9.5% 성장률을 보일 전망
  - 게다가 인공지능 기술 발달, 빅데이터 시대 개화 등으로 점차 클라우드·데이터센터용 고용량 SSD 수요가 늘어나면서 '23년부터 기업용 시장은 테라바이트 규모의 SSD 시대가 대세화될 전망
    - ※ '20년~'22년은 512.1GB~1TB 용량이 각각 33.5%, 23.8%, 22.9%로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23년에는 한 단계 상승한 1.1~2TB 규모가 32.5% 점유율로 1위에 올라서며 시장 내 주류로 자리 잡을 전망
- 우월한 낸드 기술력을 기반으로 SSD 성능·내구성 강화 등에 주력한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
  - (삼성전자) 휴대용 SSD 최초로 IP65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과 최고 3m 높이의 낙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보유한 'T7실드'를 출시(4.27일). 2TB 모델 기준 연속 읽기 속도는 1,050MB/s, 연속 쓰기 속도는 1,000MB/s로 업계 최고 수준인 점도 눈길
  - (SK하이닉스) 176단 낸드플래시를 처음 적용한 소비자용 SSD '플래티넘 P41'을 출시(5.13일). 소비자용 제품으로서 처음으로 4세대 PCIe를 기반으로 하는 NVMe SSD인 점도 눈길
  - (웨스턴디지털) 美 'What's Next Western Digital(5.9일)' 행사에서 클라우드 고객을 위한 대용량 PCIe Gen4 NVMe SSD 제품군과 게이밍 특화 SSD 2종('WD\_BLACK SN850X/P40')을 함께 공개
  - (마이크론) 세계 최초 수직 통합 176단 낸드로 구현한 '7450 NVMe SSD'의 샘플링(제품 본격 출시 전 업체에 테스트용 제품을 먼저 공급)을 시작(3.3일)
  - 해당 제품은 SQL, Oracle, Aerospike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은 물론 기존 SATA SSD에 비해 대기 시간은 50% 감소, 읽기 대역폭은 최대 12배 향상된 점이 특징

**그림 1-14 | 글로벌 SSD 시장 전망(출하량 및 매출액 기준)**



자료 : IDC, 2021.12.



## 2) 수출 동향

## □ '22.4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58.0% 늘어난 17.6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 모니터·보조기억장치 등의 주변기기 수출 호조로 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 (컴퓨터 : 0.9억 달러,  $\Delta 44.8\%$ ) 중대형 컴퓨터(0.2억 달러,  $122.2\% \uparrow$ ) 수출은 큰 폭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中 봉쇄 정책에 따른 부품 공급난 등으로 노트북PC( $\Delta 31.4\%$ ), 부분품(0.5억 달러,  $\Delta 62.6\%$ ) 수출 등의 두 자릿수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체 컴퓨터 수출은 4개월 연속 내림세
  - (주변기기 : 16.7억 달러,  $75.6\% \uparrow$ ) 프린터(0.4억 달러,  $\Delta 1.9\%$ ) 수출은 주춤한 반면 모니터(1.1억 달러,  $125.8\% \uparrow$ ), SSD(14.4억 달러,  $92.0\% \uparrow$ ) 등의 견조한 수출 고성장세가 이어지면서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성장을 지속
    - ※ 역대 SSD 수출 Top3(억 달러) : (1위) '21.9월, 15.2 / (2위) '22.4월, 14.4 / (3위) '22.3월, 14.2
- (지역별) 주요 교역국(미국·중국(홍콩 포함) 등) 수출은 SSD를 중심으로 호실적 기록
  - 미국(6.8억 달러,  $92.1\% \uparrow$ )은 모니터(0.4억 달러,  $103.4\% \uparrow$ ), 프린터(0.1억 달러,  $24.4\% \uparrow$ ), SSD(5.9억 달러,  $119.4\% \uparrow$ ) 등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12개월 연속 우상향 곡선을 유지
  - 중국(홍콩 포함, 4.9억 달러,  $18.6\% \uparrow$ )도 모니터(0.1억 달러,  $187.9\% \uparrow$ ), SSD 수출(4.3억 달러,  $60.4\% \uparrow$ ) 등의 고성장세에 힘입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성장 관측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4	5	6	7	8	9	10	11	12	'22.1	2	3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2 (3.4)	13.3 (9.8)	14.9 (18.1)	15.5 (28.2)	16.9 (26.6)	19.2 (49.1)	14.8 (48.5)	17.8 (70.8)	16.6 (43.5)	15.3 (54.3)	15.8 (47.8)	17.9 (36.9)	17.6 (58.0)
컴퓨터	1.6 (8.8)	2.0 (14.2)	1.9 (9.3)	2.1 (4.5)	1.8 (5.1)	2.0 ( $\Delta 0.3$ )	2.1 (16.6)	2.2 (10.6)	2.4 (12.8)	1.0 ( $\Delta 40.0$ )	0.8 ( $\Delta 49.3$ )	0.7 ( $\Delta 61.4$ )	0.9 ( $\Delta 44.8$ )
부품	1.3 (3.5)	1.7 (13.9)	1.6 (13.0)	1.8 (10.5)	1.5 (4.5)	1.6 ( $\Delta 5.8$ )	1.7 (16.3)	1.8 (8.0)	1.8 (9.3)	0.6 ( $\Delta 59.4$ )	0.4 ( $\Delta 69.2$ )	0.4 ( $\Delta 74.8$ )	0.5 ( $\Delta 62.6$ )
주변기기	9.5 (2.6)	11.4 (9.1)	13.0 (19.5)	13.4 (32.9)	15.1 (29.8)	17.3 (58.0)	12.8 (55.3)	15.6 (85.0)	14.2 (50.4)	14.4 (72.7)	15.0 (63.9)	17.2 (52.8)	16.7 (75.6)
보조기억장치	7.5 ( $\Delta 8.8$ )	9.7 (1.0)	11.1 (14.4)	11.2 (33.3)	13.6 (33.0)	15.3 (61.6)	10.9 (59.8)	13.9 (102.5)	12.3 (54.3)	12.1 (71.1)	13.2 (69.2)	14.2 (54.9)	14.4 (91.2)
프린터	0.4 (16.7)	0.4 (79.6)	0.4 (43.7)	0.4 (22.6)	0.3 ( $\Delta 13.7$ )	0.3 ( $\Delta 12.4$ )	0.3 ( $\Delta 9.5$ )	0.3 ( $\Delta 3.7$ )	0.4 (6.3)	0.4 (15.5)	0.3 (0.5)	0.4 (17.8)	0.4 ( $\Delta 1.9$ )
모니터	0.5 (19.4)	0.5 (91.1)	0.6 (77.5)	0.7 (75.4)	0.6 (54.7)	0.7 (68.7)	0.7 (69.7)	0.8 (63.2)	0.9 (63.3)	1.3 (191.1)	1.0 (111.9)	1.2 (119.2)	1.1 (125.8)

자료 : IITP, KTSPi



그림 1-1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56.8	25.3	32.7	미국	6.8	92.1	38.5	21.5	64.4	32.2
2	중국	44.8	8.9	25.8	중국	3.4	11.9	19.4	15.4	18.4	23.1
3	홍콩	19.1	52.4	11.0	홍콩	1.5	37.0	8.5	6.8	68.2	10.2
4	일본	5.6	11.5	3.2	멕시코	0.7	198.8	4.2	1.9	21.7	2.8
5	대만	4.9	52.1	2.8	일본	0.7	130.1	4.0	2.6	39.9	4.0
6	네덜란드	4.7	58.3	2.7	싱가포르	0.6	200.5	3.6	1.9	142.0	2.9
7	멕시코	4.7	35.4	2.7	네덜란드	0.6	71.1	3.3	2.8	131.4	4.2
8	싱가포르	4.3	106.0	2.5	대만	0.5	62.4	2.7	2.2	42.5	3.2
9	아일랜드	4.2	94.9	2.4	아일랜드	0.3	98.4	2.0	1.1	92.2	1.6
10	독일	2.8	7.3	1.6	베트남	0.3	183.7	1.9	1.4	194.7	2.1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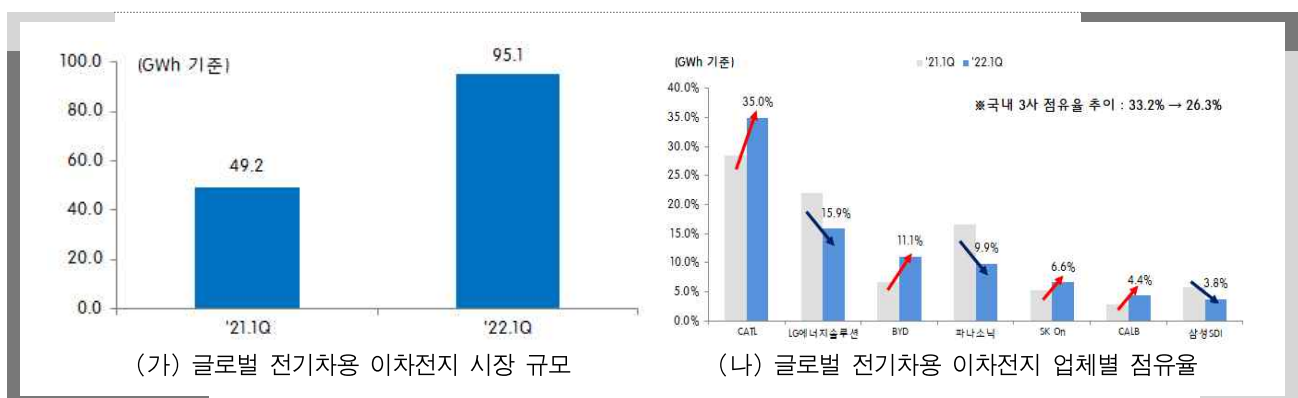


## 1) 수출 환경

### □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친환경 정책 도입, 전기차 사용 급증 등으로 고성장 지속

- **(시장 전망)** 중대형·소형 이차전지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견조한 성장 기조가 지속될 전망
  - (중대형 시장) 범국가적인 탄소 배출 감축 행보로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 신재생 에너지(태양광·풍력 등)를 저장하는 ESS 시설 등이 확대되면서 이차전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특히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22년 476GWh → '30년 3,750GWh(CAGR 29%↑)로 성장 전망(SNE리서치, '22.4월)
    - ※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1년 620만 대 → '25년 1,800만 대로 확대될 전망(유진투자증권, '22.3월)
  - (소형 시장) '22년(109.8GWh, 8.0%↑)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의 E-모빌리티(34.9%↑) 및 무선 이어폰, 스마트 워치 등의 웨어러블(60.0%↑)로 활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상승 전망
  - **(시장 규모)** '22.1분기 중대형 內 전기차용 이차전지(95.1GWh, 93.3%↑) 시장은 전기차로의 전환 가속, 이차전지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 **(경쟁 현황)** 중국의 전기차 시장 강세 등에 힘입어 CATL(33.3GWh, 137.7%↑)은 35.0%의 점유율로 1위를 수성하였고 BYD(10.5GWh, 220.4%↑)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11.1%로 3위를 기록
  - LG에너지솔루션(15.1GWh, 39.1%↑)은 중국 업체에 비해 성장 폭이 낮고 전년 대비 점유율(전년 동기 대비 △6.2%p)이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성장률로 15.9%를 차지하며 2위를 유지. 日 파나소닉(9.4GWh, 14.3%↑)은 경쟁 업체 대비 낮은 성장률로 점유율이 7.8%p 감소하며 4위로 하락
  - 반면 SK On(6.3GWh, 141.9%↑)은 국내 3사 중 가장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1단계 상승(전년 동기 대비)한 5위(6.6%)를 기록

그림 1-16 |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 및 업체별 점유율



자료 : SNE리서치, 2022.5.

## □ 대내외적 요소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업체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양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차전지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급등함에 따라 업체들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해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설립, 밸류체인 구축 등의 전략을 구사
  - ※ 인도네시아는 니켈(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 매장량·채굴량이 모두 전 세계 1위인 국가
- (LG에너지솔루션) '22.4.18일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업체인 '안탐', 이차전지 투자회사 'IBC' 등과 전기차용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논바인딩 투자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
  - ※ LG에너지솔루션을 주축으로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 화유 등이 참여하고 있는 'LG컨소시엄'은 광물, 제정련, 전구체, 양극재, 셀 생산에 이르는 완전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 또한 현대자동차와 함께 원자재 수급 안정성 확보,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10GWh(승용 전기차 13만 대) 규모의 현지 이차전지 공장(카라왕 지역, '24년 양산 예정)도 구축중인 상황
- (CATL) 세계 1위 이차전지 생산 업체인 동 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국영 광물 기업 '안탐', 이차전지 투자회사 'IBC'와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 또한 인도네시아에 약 60억 달러를 투입해 연간 10GWh 규모의 배터리 공장('26년 가동 예정) 설립 계획도 예고
  - ※ 약 24억 달러는 인도네시아 국영 전기업체 IBI와 합작하여 이차전지, 이차전지 재료, 이차전지 재생공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 나머지 약 36억 달러는 인도네시아 국영 광물회사인 아네카 탐방과 함께 니켈 광산 개발과 더불어 이차전지 원재료인 니켈·철 합금 공장을 설립할 예정
- 리튬 이온계 이차전지 중 소재 가격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의 핵심 원재료 '니켈'을 현지 조달해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으로 관측되며 독일에 이어 2번째 해외생산 거점으로 인도네시아를 채택한 점도 눈길. 중국 내 생산·수주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모양새
- 글로벌 업체들은 해외 설비 투자를 확대하며 이차전지 생산 증대에 매진,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LFP를 적용한 이차전지를 공개해 주목
  - (CATL) BMW, 테슬라, 폭스바겐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동 사는 총 18억 유로를 투자한 첫 해외 생산 기지 독일 아른슈타트 공장(14GWh 규모)을 '22.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
  - '22.4월 완성차 업체 테슬라의 베를린 공장 가동 등으로 이차전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른슈타트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 내 입지를 더욱 확대할 전망. 또한 미·중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북미 지역의 이차전지 공장 설립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
  - (Guoxuan) 영국 선더랜드 이차전지 공장 증설(1.7GWh → 38GWh)과 동시에 완성차 업체인 르노 그룹과 프랑스 현지에 43GWh 규모의 합작 공장 설립을 진행 중인 상황. LFP 이차전지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진출 행보가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
    - ※ 이외에도 中 AESC는 벤츠와 함께 미국 내 이차전지 합작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 글로벌 10위인 EVE에너지도 '22.3월 헝가리 데브레첸에 10조 원을 투자해 20GWh 규모의 원통형 이차전지 공장 설립 계획 발표

- (LG에너지솔루션) 독일에서 개최되는 'EES Europe 2022('5.11~14일)'에 참가해 ESS용 LFP 이차전지(182·444Wh)를 공개. 세계 최초로 LFP 이차전지를 각형 대신 파우치형으로 적용한 점도 주목
- 중국 업체들을 시장 점유율 1위로 이끈 LFP를 국내 업체가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며 기존 삼원계(NCM)보다 20~30% 저렴한 LFP로도 저변을 확대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
  - ※ 중국 시장을 제외한 '22.1분기 이차전지 시장에서는 32.7% 점유율로 1위(13.9GWh, 59.9%↑)를 차지(SNE리서치, '22.5월)
- (SK on) Sk on도 자사가 보유한 하이니켈 기술을 더해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산 여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관측

**표 1-13 | 이차전지 종류별 특징**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이미지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 SK on 등	삼성SDI, CATL 등	LG에너지솔루션, 파나소닉 등
해당 배터리를 적용하는 완성차 업체	GM, 현대기아차, 볼보 닛산, 포드, 르노 등	BMW, BYD,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페라리 등	테슬라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에너지 밀도</li> <li>• 형태 변경에 용이</li> <li>• 출력 성능 우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량 생산 용이</li> <li>• 높은 안정성</li> <li>• 높은 내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렴한 비용</li> <li>• 높은 안정성</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생산성</li> <li>• 약한 내구성</li> <li>• 모듈 팩 구성 시 개발 난이도 높</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에너지 밀도</li> <li>• 무거운 무게</li> <li>• 형태 변경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에너지 밀도</li> <li>• 짧은 수명</li> </ul>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CATL은 이차전지의 핵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상승 압력 대처 방안을 고민, LG에너지솔루션의 반사 이익이 기대
- 세계 1위 이차전지 업체인 CATL은 리튬을 주로 활용하는 LFP(리튬·인산·철) 기반 이차전지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강경한 제로 코로나 정책, 러·우 전쟁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 탄산리튬 가격은 '21년 6만 위안/t, '22년 초 30만 위안/t, '22.3월 50만 위안/t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 이로 인해 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파하고자 이차전지 가격 인상을 고려중인 상황
- CATL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테슬라, BMW 등의 고객사를 확보해낸 만큼 가격 상승 시 이차전지 시장 경쟁력에 대한 위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
  - ※ 전기차 생산 원가의 30~40% 가량이 배터리 가격인 만큼 배터리 가격 상승은 완성차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만약 CATL이 배터리 가격을 올릴 경우 장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을 잃어 오히려 LG에너지솔루션의 반사 이익이 기대

## 2) 수출 동향

### □ '22.4월 축전지 수출(8.1억 달러, 11.9%↑)은 2개월 연속 8억 달러대를 상회

- **(품목별)** 폭증하고 있는 전기차 수요와 더불어 전기 자전거 및 키보드 등으로도 축전지 수요처가 확대되면서 7개월 연속 오름세
  - (축전지 : 7.4억 달러, 14.6%↑)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등으로 ESS용(1.6억 달러), 전기차용(1.4억 달러)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축전지 수출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
  - (부분품 : 0.7억 달러, △12.4%) 미국(0.1억 달러, 102.3%↑)·헝가리(0.1억 달러, 95.2%↑) 등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국(홍콩 포함, 0.3억 달러, △5.5%), 폴란드(0.1억 달러, △65.2%) 등이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주도
- **(지역별)** 중국·독일 등은 하락한 반면 미국·베트남·헝가리 등의 수출 호조로 상승 지속
  - 미국(3.2억 달러, 47.8%↑)은 축전지(3.1억 달러, 46.3%↑), 부분품(0.1억 달러, 102.3%↑) 수출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2개월 연속 3억 달러대를 유지
  - 독일(0.8억 달러, △15.5%)은 부분품 수출(44.9%↑)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축전지 수출(0.8억 달러, △15.6%)이 하락하면서 2개월 연속 하향세. 다만 9개월 연속 수출 상위 2위를 지속
  - 중국(홍콩 포함, 0.5억 달러, △41.7%)은 자국 산업 육성 정책 등으로 자국 기업의 축전지 사용을 확대함에 따라 점차 수출이 하락하고 있는 시장. '20.10월 수출 상위 2위국으로, '21.8월엔 3위국으로 내려섰으며, 최근 14개월 연속 하락세
  - 베트남(0.5억 달러, 86.8%↑)은 축전지를 중심으로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으며 '22.4월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점도 눈길

※ 베트남 역대 수출 Top3(억 달러) : (1위) '22.4월 0.5, 86.8%↑ / (2위) '21.12월 0.5, 65.1%↑ / (3위) '22.3월 0.5, 20.9%↑

**표 1-14 축전지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1.4	5	6	7	8	9	10	11	12	'22.1	2	3	4
축전지	7.2 (27.6)	7.3 (32.1)	8.1 (39.4)	7.9 (31.4)	6.9 (10.8)	7.2 (△2.0)	6.9 (1.5)	7.3 (7.5)	7.4 (3.4)	7.3 (16.0)	6.9 (10.4)	8.6 (8.6)	8.1 (11.9)
축전지	6.5 (30.3)	6.6 (31.5)	7.4 (44.9)	7.1 (36.7)	6.2 (11.5)	6.6 (△1.0)	6.3 (3.2)	6.8 (11.6)	6.7 (6.3)	6.6 (17.3)	6.3 (14.0)	7.9 (11.0)	7.4 (14.6)
부분품	0.8 (8.8)	0.7 (37.7)	0.7 (0.0)	0.8 (△2.2)	0.7 (5.1)	0.6 (△11.6)	0.6 (△14.5)	0.5 (△26.4)	0.6 (△20.4)	0.7 (2.8)	0.6 (△16.2)	0.7 (△16.4)	0.7 (△12.4)

자료 : IITP, KTSPI



그림 1-17 축전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5 이차전지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년 연간				2022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27.4	123.9	31.6	미국	3.2	47.8	39.3	11.0	36.9	35.6
2	독일	9.9	-2.3	11.4	독일	0.8	-15.5	10.1	3.4	-0.5	11.1
3	중국	8.5	-24.9	9.8	중국	0.5	-36.3	6.4	2.3	-22.7	7.5
4	폴란드	5.7	-16.4	6.6	베트남	0.5	86.8	6.1	1.7	34.7	5.5
5	베트남	3.9	2.2	4.5	일본	0.3	14.7	3.7	1.3	19.7	4.3
6	일본	3.5	5.8	4.0	헝가리	0.2	73.8	3.0	1.2	217.7	3.8
7	헝가리	2.6	90.9	3.0	폴란드	0.2	-62.2	2.6	1.1	-57.7	3.5
8	호주	2.1	41.8	2.4	호주	0.2	-25.0	2.4	0.8	34.7	2.5
9	홍콩	1.8	-37.1	2.0	인도	0.2	820.1	1.9	0.4	462.6	1.3
10	프랑스	1.6	32.1	1.9	슬로바키아	0.1	34.5	1.8	0.4	-21.8	1.1

자료 : IITP, KTSPI



## 8 SW

### 1) 수출 환경

#### □ '22년 글로벌 SW 시장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미·신흥국 등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

- (시장 전망) '22년 글로벌 SW 시장 규모는 패키지SW와 IT서비스가 동반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7.8% 증가한 1조 9,400억 달러가 예상(Gartner, '22.3월)
  - 비즈니스 민첩성 향상 요구에 따라 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를 구축하기 위한 SW 도입이 증가하면서 IT서비스(7,691억 달러, 3.6%↑) 및 패키지SW(8,006억 달러, 10.2%↑) 등 글로벌 SW 시장은 확대될 전망
  -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일부 지역에서의 SW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성장세는 '21.12월 전망치 (1조 9,515억 달러, 9.0%↑) 대비 1.2%p 하향 조정
- (국가별) 상위 20개 국가 모두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북미·신흥국에서 고성장할 전망
  - 43.9%의 압도적인 비중으로 SW 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은 패키지SW 시장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며 시장 규모가 8,52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 다른 북미 국가인 캐나다(7위, 증감률 11.9%↑)도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
  - 중국(4위, 증감률 18.1%↑)이 상위 20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도(9위, 10.6%↑)·브라질(16위, 7.0%↑)·멕시코(18위, 9.4%↑)·등 신흥국도 호조세가 예상
  - 국내 SW 시장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65억 달러 규모로 전망되며 세계 시장 내 비중은 1.4%, 상위 20개 국가 중 13위에 랭크될 것으로 예상

**그림 1-18 전 세계 SW 시장 전망 및 국가별 비중 전망**



자료 : Gartner, 2022.3.








## □ 국내 IT서비스 업체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등 신사업 확대

- 삼성SDS는 디지털 물류 플랫폼의 글로벌 서비스 시작, LG CNS는 스마트시티 사업 수주, SK C&C는 대체불가능토큰(NFT)용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 기업들은 신규 사업 확대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업을 강화

표 1-16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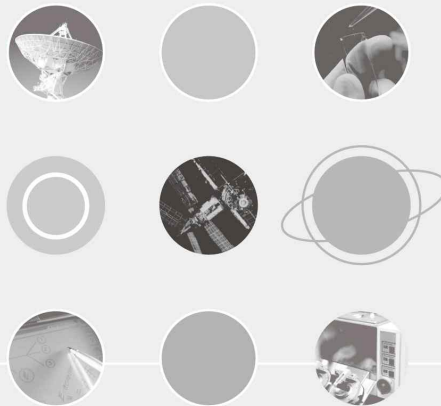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RPA 등을 적용한 디지털 물류 플랫폼 '첼로 스퀘어'를 중국에 서비스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li> <li>- '22.5.1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첼로 스퀘어 컨퍼런스 2022'에서 디지털 물류서비스 '첼로 스퀘어'를 중국을 시작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 올해 하반기에는 동남아, '23년에는 미국·유럽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예정</li> <li>※ '첼로 스퀘어(Cello Square)'는 항공, 해상 등 운송 업무별로 나눠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일원화한 서비스로 특송 서비스를 비롯해 해상, 항공 등 모든 국제 운송 업무와 물류 관련 디지털 서비스를 통합 제공. 또한 화주가 입력한 화물 종류, 중량 및 용적, 운송구간, 납기일, 운임 등 운송화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운송 경로를 자동으로 추천</li> <li>- 향후 첼로 스퀘어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글로벌 플랫폼 물류 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종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부산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에 선정되는 등 관련 사업 역량 강화</li> <li>- 5.18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운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AI·데이터,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디지털트윈, 헬스케어, 사이버보안, 스마트 IoT, 생활 혁신 서비스 등 본 스마트시티 디지털전환(DX) 서비스 구축을 총괄할 전망</li> <li>-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가 약 5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li> <li>- 277만 6,860㎡ 규모의 부산 강서구 내 부지에 IT를 적용한 상업·업무·주거·문화 시설 등을 구축하며 사업 기간은 구축 5년, 운영 10년을 포함한 총 15년으로 계획</li> <li>- LG CNS는 90일 이내에 사업시행합의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에 착수할 계획</li> <li>- 한편 LG CNS는 '21년 3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사업자로도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에 최적화된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제트 포 엔에프티'를 공개하는 등 신서비스 개발</li> <li>- '22.5.11일 개최된 인터넷 세미나를 통해 NFT 제작 거래 플랫폼 '체인제트 포 엔에프티' 공개와 더불어 NFT 발행부터 퍼블릭 이더리움 반출 시연까지 플랫폼을 활용한 NFT 서비스 전반을 공개</li> <li>※ '체인제트 포 엔에프티(ChainZ for NFT)'는 SK C&amp;C가 운영 중인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제트'(ChainZ)에 NFT 서비스를 추가한 서비스로 블록체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산 성격에 맞춰 다양한 NFT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화 플랫폼</li> <li>- '체인제트 포 엔에프티'는 쉽게 이용하고 기존의 플랫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차별화된 블록체인 키 관리 기술이 적용돼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li> <li>- 본 서비스를 통해 대표적 NFT인 이더리움 기반 프라이빗 체인으로 금융·유통·게임·공공 등 여러 산업별 블록체인 개발자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NFT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징 등 자율적인 고객 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할 것으로 기대</li> </ul>

자료 : 언론 보도 정리



# II

## 트레이드 G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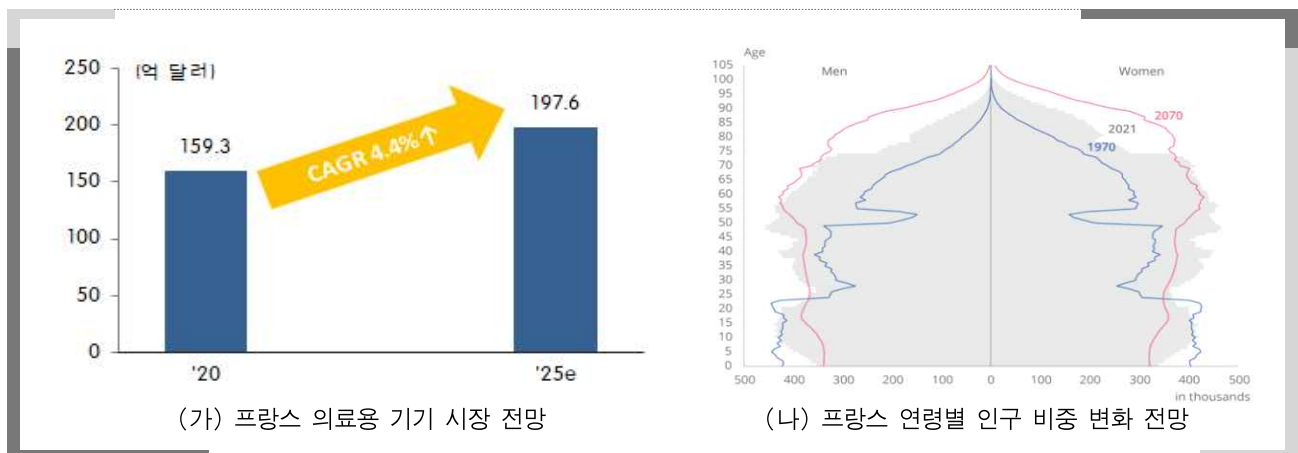
## II 트레이드 GPS<sup>3)</sup>

### 1 프랑스 - 의료용 기기

#### □ 코로나19로 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의료용 기기 시장에 주목

- 프랑스 정부는 의료 시스템 품질 제고를 위해 병원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 등을 시행하며 의료용 기기 수요를 촉진
  - 프랑스는 유럽 의료용 기기 시장에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화 인구 및 만성질환자 등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에 속도
    - ※ 프랑스 내 65세 이상 인구는 '21년 20.7%에서 '50년 28.9%까지 확대되며 점차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일 전망(INSEE, '21년)
  - 먼저 낙후된 의료 시스템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년까지 병원 의료 시스템 현대화 25% 달성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를 시행한 데 이어 '21.6월 '보건혁신 2030(Santé Innovation 2030)' 정책 등을 도입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 및 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추진해 의료용 기기 산업 성장을 촉진
  - 또한 '18년 원격진료를 법적으로 전격 허용한 이후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가정용 의료용 기기 수요도 점차 증가. 이에 따라 프랑스 의료용 기기 시장은 '20년 159.3억 달러에서 '25년 197.6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4.4%↑) 규모로 성장할 전망

그림 2-1 프랑스 의료용 기기 시장 및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 전망



자료 : NIDS, 2021.12.(원소스 GlobalData) / INSEE(프랑스 통계청), 2021.

3)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 □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며 시장 성장 기반을 마련

### ○ (참고) 디지털(스마트) 헬스케어 정의 및 분류

-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분야에 AI, 빅데이터, 유전체 분석, 3D 프린팅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질병 진단, 치료를 넘어 질병 예측 및 예방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로 주로 사용

※ 아직까지 디지털 헬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 최근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자 증가 추세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한적인 의료 자원의 대체재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부상
- 의료 분야의 패러다임도 치료→예측·예방 등을 중심으로 확대 변화하고 있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년 1,525억 달러→'27년 5,088억 달러(CAGR 18.8%↑) 규모로 성장 전망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2.1월, 원소스 GIA)

### <헬스케어 서비스 발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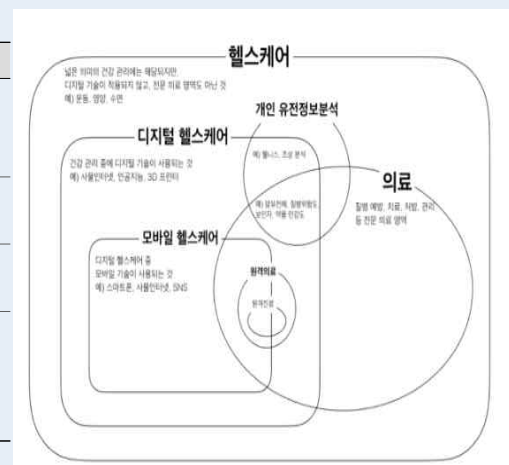
구분	Tele-health	e-health	u-health	digital-health
시기	1990년 중반	2000년	2006년	2010년 이후
서비스 내용	원내 치료	치료 및 정보제공	치료/예방관리	치료/예방/복지/안전
주 제공자	병원	병원	병원, ICT기업	병원, ICT 기업, 보험사, 서비스 기업 등
주 이용자	의료인	의료인, 환자	의료인, 환자, 일반인	의료인, 환자, 일반인
주요 시스템	병원운영(HIS, PACS)	의무기록 웹사이트(EMR)	건강기록 모니터링(EHR)	개인건강기록 기반 맞춤형 서비스

자료 : KMA 의료정책연구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2022.1. 재인용

###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별 특징 및 관련 분야 구성도>

유형	특징
원격의료 (Telehealthcare)	• 환자와 의사 간 임상적 데이터를 원격으로 교환하고 ICT 기술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서도 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보조
모바일헬스 (mHealth)	• 건강, 웰빙에 관련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의미
보건의료분석학 (Health analytics)	•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역량
디지털화된 보건의료시스템 (Digitised health systems)	• 디지털 건강 정보 저장 및 디지털화된 환자 의료 기록 교환. 병원주도의료기록, 환자 주도의료기록(PHR, mydata 등) 등을 의미

(가)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별 특징



(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분야 구성도

자료 : Deloitte / 최윤섭, 2020. 재인용



- 프랑스, ‘보건혁신 2030’ 정책 도입 및 투자 확대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을 촉진
  - 프랑스 정부는 유럽 내 보건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건혁신 2030(Santé Innovation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5P 의료로의 전환 등을 목표로 제시
    - ※ 5P 의료는 예방적(préventif), 개인화(personnalisé), 예측적(prédictif), 참여 지향적(participatif), 증거기반(basé sur les preuves) 의료를 의미
  - 이어 ’21.10월 원격의료 등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6억 5,000만 유로를 추가 투자기로 결정(EURACTIV). 원격의료를 통한 질병 예방, 수술용 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용 기기 개발 등에 가장 많은 예산(투자 예산의 1/3가량인 2.02억 유로)을 투입할 예정
    - ※ 이외에도 1억 6,800만 유로는 의료 시설 등의 현장에 디지털 헬스 서비스 혁신을 실험하는 시범 사업부문에, 8,100만 유로 등은 의료 전문 분야의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등에 지원할 계획
  - 이러한 국가 주도적인 헬스케어 산업 지원 등으로 프랑스의 디지털 헬스 시장은 ’22년 32.1억 달러 → ’26년 41.3억 달러(연평균 성장률 13.1%↑) 규모로 확대될 전망(Statista, ’22.3월)

**표 2-1 | 프랑스 보건혁신 2030 7대 정책**

	주요 내용	상세 내용
1	• 바이오메디컬 연구 역량 강화(10억 유로)	- 보건 통합연구 프로젝트 지원 - 정상급 연구자의 프랑스 유치, 활동 지속 유도
2	• 3대 미래 보건 분야 지원(바이오테라피, 디지털 헬스, 전염병·신종 감염병 연구)	- 바이오 테라피 개발을 지원하고 국외 바이오 테라피에 대한 95% 의존도 개선 - <b>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5P 의료로의 전환</b> - 팬데믹에 대비하고 대응 수단 확보
3	• 프랑스의 유럽 내 임상실험 선도 국가화	- 개인보호위원회를 비롯한 임상실험 허가 체계의 단순화 및 가속화 - 임상실험의 윤리적 평가를 위해 행동하는 전문가에 대한 중요성 인정
4	• 의료 서비스 제공 기획의 공평한 접근과 혁신적 기술이 시장에 빠르고 쉽게 접근 가능한 환경 제공	- 의약품 및 의약품 및 의료 장치 혜택 부여 조건 확대 - 최고보건청(Haute autorité de santé)의 임상편익개선수준(Amélioration du service médical rendu, ASMR) 1~4단계를 받은 의약품이 즉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련
5	• 보건 및 산업 주권에 합치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적 프레임워크의 제공	- 혁신과 중소기업을 우선시하며 보건 주권이라는 목표에 맞춘 병원 조달 정책의 실행 - 의약품과 보건 제품 비용의 가시성 확보
6	• 보건 제품의 국내 생산 지원, 해당 분야 기업의 성장 촉진	- 15억 유로 규모의 추가적 지원을 비롯하여, 보건 산업 투자와 본국으로의 재이전에 대한 지원 가속화 -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은행의 5년간 투자 금액 20억 유로 보강 - ‘프렌치 테크 주권 기금(Fonds French Tech Souveraineté)’의 보건 분야 영향력 강화, 보건 분야 투자자들의 Tibi 이니셔티브 참여 독려
7	• 보건 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이끌어갈 기관 창설	- 활동 권한 및 수단을 갖춘 기관이 보건 분야 이해당사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가칭 보건혁신청(Agence de l'innovation en santé) 신설

자료 : Innovation Santé 2030, 2021.6. / 한국조달연구원, 2021.8. 재인용

## □ 코로나 확산 이후 원격의료 시장 규모가 더욱 확대. 관련 의료용 기기 수요 증가도 기대

- 프랑스는 의료 서비스 사막화 해결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용 완화

등을 위해 원격의료를 법적으로 전격 허용하며 원격진료 대상자를 가장 보편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

- '10~'18년 동안 프랑스에서 퇴직한 의사 수는 43.6% 증가했으나 현업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0.3% 증가에 그쳐 지역 내 의료 인력 부족 및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NIDS, '21.12월)

※ 프랑스의 젊은 의사들은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길 원치 않아 정규가 아닌 파트타임 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KOTRA)

- 또한 EU 국가 내에서 기대수명이 세 번째('15년 기준)로 높고 전체 인구 약 1/4('16년 기준)에 이르는 프랑스인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어 모니터링 등을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 필요성이 증대

-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12년 원격진료 관련 정책 토대 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였고 '18년 법적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 '20년까지 의료 소외 지역 및 노인복지시설 등에 원격진단 장비 설치 등도 추가 진행

※ '18년 프랑스는 원격진료 대상자를 건강보험 가입자, 공적 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등으로 확대 규정하였으며 동 기간 원격진료 시장은 3억 5,000만 유로 규모를 기록(Statista)

-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격진료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단 표 참조)하며 비대면 진료를 적극 권장해 '20년 프랑스 원격의료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

※ '20.3월 초 프랑스 내 원격진료 및 병원예약 플랫폼 '닥터립'의 예약률이 이전 대비 40%가량 증가하였으며 '20.4월 원격의료 등록 의사도 전월 대비 약 8.5배 증가. 또한 한 달 간 88.5만 건 이상의 원격진료가 시행(KOTRA)

-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원격의료 시장 성장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는 프랑스는 의료 소외지역 및 시설, 가정 등을 중심으로 의료용 기기 수요가 견조한 성장을 보일 전망

**표 2-2 | 코로나19 전후 프랑스의 원격의료관련 규제 완화 내용**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일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의사에 의해 처음 원격의료가 요청돼야 한다. 하지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li> <li>- 환자가 16세 미만인 경우 / 산부인과, 안과, 소아과, 정신과와 같은 직접 진찰의료전문분야 관련 상황인 경우 / 응급 상황인 경우 / 지정된 주치의가 없거나 담당 의사가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을 경우</li> <li>•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대면 의료를 받았어야 한다. 반면, 긴급 상황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li> <li>•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에 환급 받기 위해서는 비디오 보안 플랫폼을 통해 영상 자료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원격 상담이 진행되어야 한다. 의료인은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진료해야 하며, 보안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한다.</li> <li>• 환자는 웹 카메라가 장치되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li> <li>• 일반 진료와 같이 70%까지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 주치의 결정 없이도 환자는 원격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li> <li>• 담당 의료인이 아닌 처음 만나는 의료인에게 원격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li> <li>• 디지털 접근에 대한 불균형을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 의심환자, 임산부, '백색 구역(휴대전화나 인터넷 네트워크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거주자, 만성병 환자 또는 70세 이상의 환자에게는 전화 의료 상담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li> <li>• 원격진료비용 전액을 '20.12.31일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li> </ul>

자료 : 국무조정실, 2021.1. 재인용





## □ (참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디지털 치료제

- 기존 하드웨어 형태에 국한되어 있던 의료용 기기 시장은 ICT 기술 융합 등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등장하면서 시장 저변이 확장
  - 디지털 치료제는 과학적·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1세대 치료제인 합성 신약, 2세대 바이오 의약품에 이어 ‘3세대 치료제’로 각광
  - 기존 의약품과도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며 독성과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거의 없고 개발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커 주목. 특히 중추 신경계, 만성질환, 신경정신 질환 관련 제품이 다수
    - ※ '17.9월 美 식품의약국(FDA)은 페어 테라퓨틱스의 ‘리셋(reSET)’을 디지털 치료제로 첫 허가해 주목. 해당 치료제는 대마초, 코카인, 알코올 등 약물중독 치료에 사용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소프트웨어 형태
  - 최근까지도 디지털 치료제 관련 임상 데이터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며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0년 21억 달러 → '25년 69억 달러에 이를 전망(전자신문, '21.3월)
    - ※ (#1) 내장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특정 장비나 장치에 내장되어 해당 의료기기를 작동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며 엑스선발생장치,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등의 기기에만 설치되어 작동 가능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 ※ (#2)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컴퓨터, 태블릿PC, 모바일 폰 등의 범용 장비나 장치에 설치해 사용하며 의료영상 전송처리장치, 뇌영상 검출진단 보조소프트웨어, 모바일 심전계 등을 포함

### <디지털 헬스케어 內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프트웨어	의료·건강 관리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건강정보 제공 App<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반적 의학정보, 운동정보, 영양정보 등 건강정보 제공</li></ul></li><li>맞춤형 건강관리 App<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개인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제공</li></ul></li></ul>	웰니스( 휴식방법, 요가 등) App
			개인 건강기록(PHR) App
			영양관리 및 정보 제공 App
			의학적 정보(약품, 질병, 복약 등) 제공 App
	미들웨어, 플랫폼, 통신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의료장비관리 플랫폼/DB<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의료기관 의료정보 통합 저장/ 관리 시스템</li></ul></li><li>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DB<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건강·의료정보 통합 저장, 관리</li></ul></li></ul>	병원기록 관리 App
			피트니스 또는 운동 관리 App
			의료정보관리 플랫폼(EMR, EHR 등)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기타	

자료 : 산업연구원, 2017. 재인용

## □ (업체 동향) 맞춤형·정밀 의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의료용 기기를 경쟁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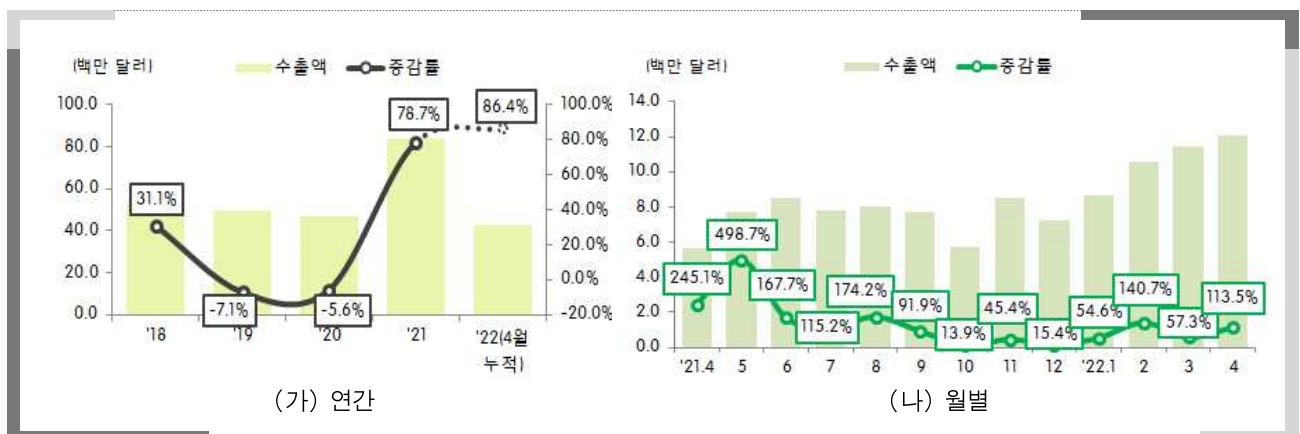
- 글로벌 업체들은 AI 기술 적용,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의료용 기기 성능을 제고,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공급망에 타격을 받아 일부 업체들은 신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이 발생
  - (Medtronic) '18.10월 메이저 로보틱스(Mazor Robotics)를 인수한 후 척추 수술을 보조해주는 로봇 ‘Mazor X Stealth Edition’을 출시('19.2월). 최적의 3D 분석 등이 가능해 수술 정확도를 제고

- 또한 '22.1월 한층 더 개선된 인슐린 펌프 'MiniMed 770G'를 출시. 환자 혈당을 5분마다 모니터링 하여 인슐린 주입량을 알맞게 자동 조절해주는 '스마트가드 자동 모드' 기능이 추가돼 눈길
- 한편 코로나19로 공급망 타격, 부품난 등의 악상황이 지속되면서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 '휴고' 출시 일정이 지연될 것이라 발표('21.11월). '21.10월 CE 인증까지 받아 시일 내 출시가 기대됐으나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 해당 제품은 의사가 콘솔기기를 통해 로봇 팔을 조종하는 수술 시스템으로 3D 시각화 및 수술 비디오 캡처 옵션 등을 갖추었으며 비뇨기과 및 부인과 수술 분야 등에 활용될 전망
- (Johnson&Johnson) 마찬가지로 '22.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수술용 로봇 시스템 '오타바(Ottava)'도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출시 일정을 2년 연기할 것이라 발표('21.10월)
- (Abbott Laboratories) 체외진단기기 시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동 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여행 수요 회복 등에 따른 코로나19 자가키트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또한 자사 혈당 체크 제품들에 신기술 '링고(Lingo)'를 적용할 것이라 발표. 링고는 포도당, 케톤, 젖산의 양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자사의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용 기술로 주목
- (Philips Healthcare) '22.3.10~13일 개최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에 참가해 AI 기반의 '인사이시브 CT 프리미엄', 영상 선명도를 높인 'Ultrasound 3300 초음파' 등을 공개
  - ※ '인사이시브 CT 프리미엄'은 CT에 인공지능(AI)을 접목시켜 촬영 부위, 장기별 특성에 맞게 이미지를 재구성해 고화질 영상을 제공. 'Ultrasound 3300 초음파'도 엑스레이 기술 등을 바탕으로 영상을 더욱 선명하게 구현
- (GE Healthcare) '21.9월 초음파에 기반한 수술 내비게이션과 이미징 기술을 보유한 BK메디컬을 14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하여 초음파 진단 영역에서의 사업을 확장
- 'KIMES 2022'에도 참가해 초음파를 비롯한 차세대 신제품과 AI 플랫폼 '에디슨(Edison)'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비비드, 볼루손 등)을 대거 전시
  - ※ 심장혈관 초음파 '비비드(ViViD)'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 시간을 단축. 산부인과 진단에 특화된 초음파 '볼루손(Voluson)'은 AI 플랫폼 에디슨을 기반으로 태아의 중추신경검사 결과 값을 자동으로 제공해 진단의 효율성을 제고
- (Stryker) 정형외과 의료기기 업체인 동 사는 인공관절 치환 수술용 센서 기술을 보유한 '오소 센서'를 인수('21.1월)하여 정형외과 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동 사가 보유한 인공관절 수술 로봇 '마코(MAKO)'에 탑재해 성능을 한 단계 더 개선할 계획
- (바텍) 치과 영상장비 전문 업체인 동 사는 치과용 CT 신제품 'vatech A9'을 출시('21.9.8일). 임플란트 시술이나 턱관절 장애 진단 등에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을 3차원으로 제공하는 점이 특징
- (삼성메디슨) 초음파와 MRI를 융합하여 전립선암 조직검사 정확도를 높인 '에스퓨전' 기술을 '21.11월 조직검사 시술에 처음으로 활용해 주목. 향후 동 사의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S85 Prestige('19.12월 출시)'에 탑재해 전립선암 정확도를 한층 더 높일 계획

## □ '21년 對프랑스 의료용 기기 수출은 2년간의 역성장을 딛고 반등, '22년 수출도 성장 기조가 이어질 전망

- (연간) 의료 현대화 정책, 디지털 헬스케어 실현 등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로 의료용 기기 수요가 증가
  - 프랑스가 원격의료를 공식적으로 법제화한 '18년(5,371만 달러, 31.1%↑) 수출은 청력검사기기, 임신진단기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전기 및 전자식 진단기기(773만 달러, 93.6%↑) 수요가 증가하면서 5,000만 달러대를 첫 돌파하며 상승 전환
  - '20년(4,710만 달러, △5.6%)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21년(8,416만 달러, 78.7%↑)은 전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특히 전기치료기기(1,330만 달러, 165.9%↑) 수요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 수출치를 기록
  - '22년 수출도 초음파 진단기(4월 누적, 414만 달러, 107.0%↑), 전기치료기기(1,153만 달러, 269.5%↑) 호조 등으로 고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월별) 對프랑스 의료용 기기 수출은 원격의료 등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14개월 연속 성장세를 유지
  - '21.4월 수출(565만 달러, 245.1%↑)은 X선 및 방사선기기(271만 달러, 1,679.6%↑), 전기치료기기(97만 달러, 4,700.9%↑) 등의 급등으로 큰 폭 성장하며 오름세를 지속
  - '22.2월 수출(1,053만 달러, 140.7%↑)도 초음파 진단기(110만 달러, 189.3%↑), 전기치료기기(323만 달러, 468.3%↑) 등의 상승에 힘입어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1,000만 달러대를 첫 돌파
  - '22.4월 對프랑스 의료용 기기 수출(1,207만 달러, 113.5%↑)은 '96년 이래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

그림 2-2 | 對프랑스 의료용 기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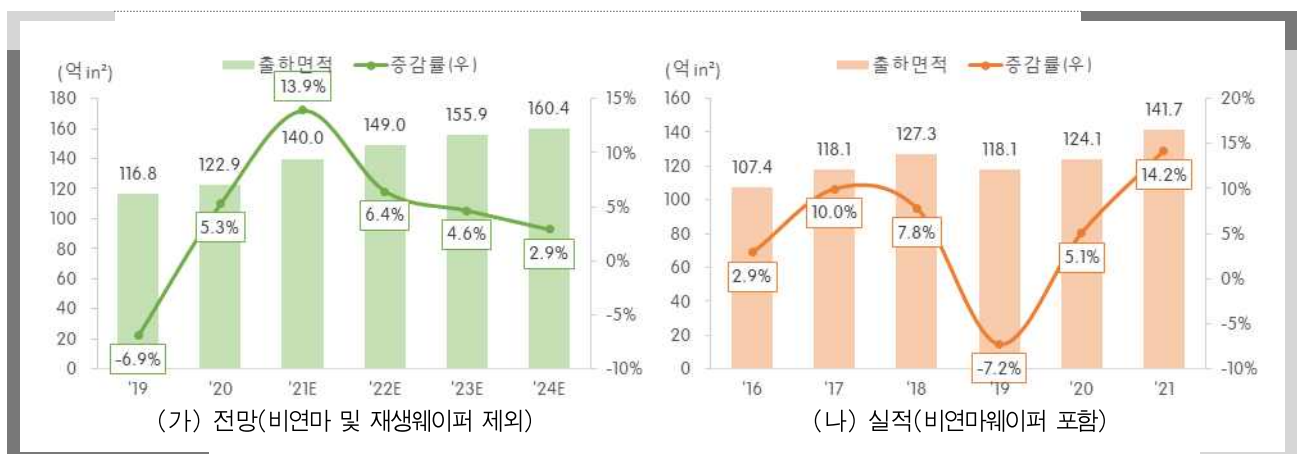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 2 실리콘 웨이퍼<sup>4)</sup>

### □ 반도체 및 태양광 발전 등으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리콘 웨이퍼 시장은 성장

-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반도체용) 시장 규모는 '19년 전년 대비 6.9% 감소한 116.8억 in<sup>2</sup> (제곱인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수요 증가에 따라 연평균 6.6%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24년 160억 in<sup>2</sup>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SEMI, '21.10월)
-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비연마 및 재생웨이퍼 제외) 시장은 '19년 반도체 시장 호황기('18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20년에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122.9억 in<sup>2</sup>로 반등(SEMI, '21.10월)
- 이후 '21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40.0억 in<sup>2</sup>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22년 149.0억 in<sup>2</sup>에 이어 '24년에는 160.4억 in<sup>2</sup>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비연마 웨이퍼를 포함한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출하면적은 '21년 전년(124.1억 in<sup>2</sup>) 대비 14.2% 증가한 141.7억 in<sup>2</sup>로 증가(SEMI, '22.2월). '22.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36.8억 in<sup>2</sup>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SEMI, '22.5월)
  - ※ 세계 웨이퍼 산업은 공급과잉 상태였으나 '21.3분기부터 공급부족으로 전환됐으며 물량 부족으로 300mm(12인치) 웨이퍼에 이어 200mm(8인치) 웨이퍼 수요도 동반 상승
- 전방 수요 증가와 더불어 생산 업체의 연이은 증설 투자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까지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26년까지는 시장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그림 2-3 |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시장 규모



자료 : SEMI 재인용, 2021.10. / SEMI 재인용, 2022.5.

4) 반도체의 주재료로 원통형 실리콘을 얇게 잘라내 거울처럼 반짝이는 원형 판으로 만든 것으로 지름 200mm(8인치) 웨이퍼는 자동차용 등 중저가 반도체, 300mm(12인치)는 첨단 공정의 반도체 생산에 주로 활용

- 직접회로 반도체 및 태양광 소자(감광성반도체소자) 등 시장이 확대되면서 제품 생산에 근간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 수요도 확대되는 양상
  - (직접회로 반도체) '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가전PC 등 IT 제품 및 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증가. 또한 빅데이터, AI, 5G 모바일, 자율주행 등 시장 성장에 따라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는 등 서버향 반도체 수요도 급증
  -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라 반도체 시장은 '20년 11.5% 증가한 4,70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연평균 9.0%의 성장세를 지속하며 '26년에는 7,904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Gartner, '22.3월)
  - 반도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수요 증가로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이 증가했으며 또한 늘어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사들이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하면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실리콘 웨이퍼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전망
    - ※ 실리콘 웨이퍼는 반도체 제작의 핵심 소재로 정밀하게 가공된 실리콘 디스크는 1인치에서 12인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경으로 생산되며 기판 소재로 사용되어 그 위에 대부분의 반도체 칩을 생산
  - (태양광 소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탈탄소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중국 및 유럽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가 확대되면서 태양광 소자 수요가 증가
  - 이에 '21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184GW를 기록했으며 '23년에는 250GW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양광 소자향 실리콘 웨이퍼 수요도 증가할 전망
    - ※ 태양광 전지 산업 공급망은 폴리실리콘 → 잉곳 → 웨이퍼 → 셀 → 모듈 순으로 생산
  - 특히 최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따른 대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부상하면서 실리콘 웨이퍼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그림 2-4 | 반도체 및 태양광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2.3. / 한국수출입은행(원소스 BNEF) 재인용, 2022.4.



## □ 실리콘 웨이퍼 수요 증가에 따라 주요 생산 업체는 투자 확대 및 가격 인상을 진행

- **(점유율)** 글로벌 웨이퍼 시장은 신에츠화학·섬코·글로벌웨이퍼스·실트로닉·SK실트론 등이 상위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실리콘 웨이퍼 시장의 약 90%를 점유
  - '20년에는 일본 신에츠화학이 30% 이상의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인 SK실트론이 10.6%의 점유율로 5위를 차지
  - '21년에는 업체별 순위는 동일하나 대부분의 상위 업체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SK실트론은 300mm 시장에서 선전하며 11.3%의 점유율로 시장 입지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
  - ※ 전체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300mm 비중(면적 기준, 움디아)은 '19년 67.3% → '21년 70%를 넘어섰으며 '25년에는 73.8%에 이를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관측되는 시장. SK실트론은 300mm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21년 점유율 18.1%로 신에츠화학(29.8%), 섬코(24.8%)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

**그림 2-5 | 실리콘 웨이퍼 업체별 점유율**



자료 : 한국경제(원소스 움디아) 재인용, 2022.3.16. / 매일경제(원소스 침인사이즈) 재인용, 2022.3.16.

- **(투자 동향)** 반도체향 수요가 늘면서 주요 실리콘 웨이퍼 업체들은 연이어 증설 투자 진행
  - 시장 1위 업체인 신에츠화학은 고부가가치 제품(300mm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2.1분기 800억 엔(약 8,400억 원) 투자를 단행
  - 섬코는 '21.10월 2,287억 엔(약 2조 4,000억 원)을 투자해 300mm 웨이퍼 라인에 대한 추가 증설을 발표했으며 '23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건설될 전망
  - 글로벌웨이퍼스는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2월 43억 5,000만 유로(약 5조 9,700억 원)를 투입해 실트로닉 인수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독일 정부의 승인 기한 만료('22.1.31일)로 인수가 무산된 이후 '24년까지 36억 달러(약 4조 3,2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로 선회
  - ※ 글로벌웨이퍼스는 이번 자금을 200mm, 300mm 웨이퍼 라인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억 달러는 신공장, 16억 달러는 구공장 시설 확충에 활용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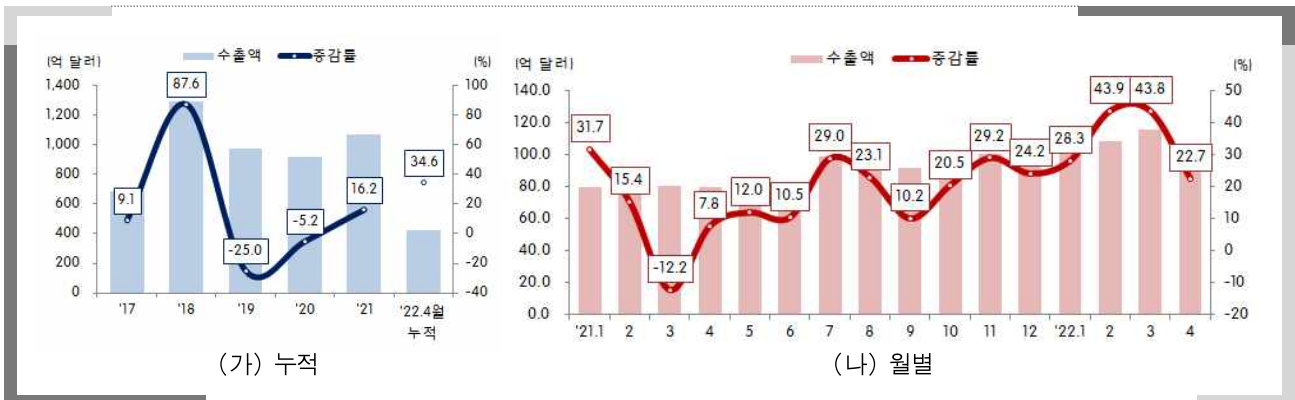


- '22.3.16일 SK실트론은 실리콘 웨이퍼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미국가 산업단지에 3년간 1조 495억 원을 투자해 4만 2,716㎡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웨이퍼 공장 증설을 발표했으며 생산 제품은 300mm 웨이퍼가 될 전망
  - ※ 한편 SK실트론은 실리콘 웨이퍼 물량 확대와 더불어 '20년 미국 듀폰사의 실리콘카바이드(SiC) 6인치 웨이퍼 사업 및 '22.4월 국내 SiC 전력반도체 설계·제조사 예스파워테크닉스를 인수하는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웨이퍼로 주목받고 있는 SiC 웨이퍼 경쟁력을 강화
- **(가격 인상)** 실리콘 웨이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주요 생산 업체는 가격을 연이어 인상. 특히 원자재인 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리콘 웨이퍼 가격 상승을 견인
  - 신에츠화학은 실리콘 공급 제약 및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21.4월 웨이퍼 가격을 20% 올린다고 발표했으며 '22.4.15일 웨이퍼 등 실리콘 제품 가격을 당월부터 추가로 10% 인상하기로 결정
  - 섬코도 지난해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실리콘 웨이퍼 가격을 20% 인상했으며 글로벌웨이퍼스, 실트로닉도 가격 인상을 발표. 또한 대만 FST(Formosa Sumco Technology)와 웨이퍼웍스도 최소 10%에서 최대 30%의 웨이퍼 가격 인상을 예고
  - 웨이퍼 업체의 잇따른 가격 인상은 반도체 품귀에 따른 웨이퍼 수요 증가와 더불어 폴리실리콘 등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 폴리실리콘 가격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중국 전력난으로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규소 생산량이 줄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우려
    - ※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달러/kg, 이데일리, 원소스 PV인사이트) : ('20.10월) 10.0→('21.6월) 21.5→(10월) 38.0

## □ 실리콘 웨이퍼 수출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홍콩)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전체)** 실리콘 웨이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22.3월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22.4월 누적 수출도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선전이 기대
  - (누적) '18년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 초호황으로 실리콘 웨이퍼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출은 전년 대비 87.6% 증가한 13.0억 달러를 달성
  - '19년에는 전년 수출 흥행에 따른 기저효과, '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방수요 부진으로 웨이퍼 수요가 감소하며 2년간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비대면 환경 전환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등으로 '21년 실리콘 웨이퍼 수출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10.7억 달러로 반등
  - '22.4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한 4.3억 달러로 동월 누적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반도체 시장 호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실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월별) 차량용·IT 등 전 산업에 걸쳐 반도체 품귀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반도체 제작에 필수적인 실리콘 웨이퍼 수요도 늘어나면서 '20.5월 이후 '22.4월까지('21.3월 제외) 성장세를 지속
  - 특히 '22.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3.8% 증가한 1.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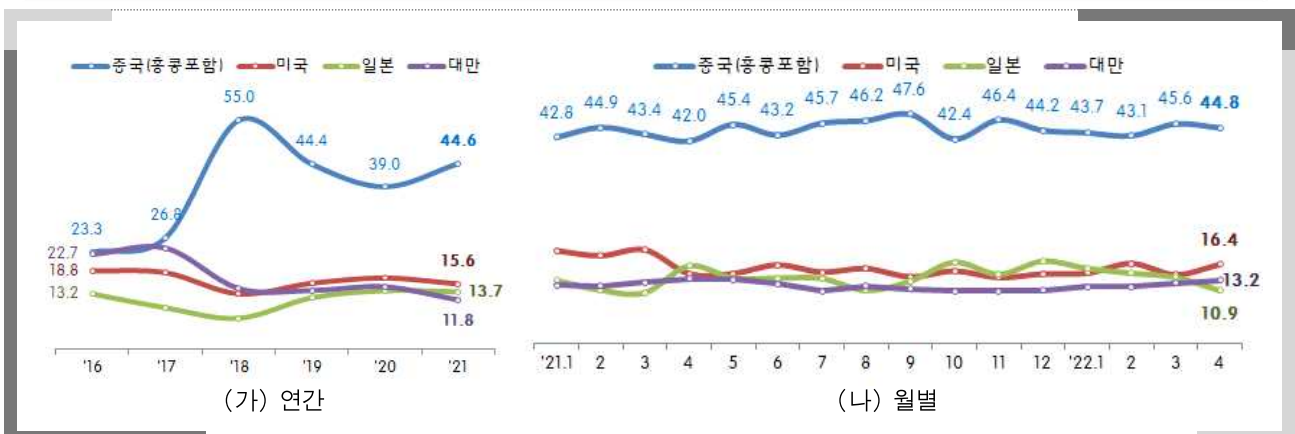
그림 2-6 실리콘 웨이퍼 누적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국가별) 중국(홍콩)·미국·일본·대만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실리콘 웨이퍼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18년 이후 중국(홍콩) 수출이 최대 50% 이상을 차지
- (누적) '17년까지는 중국(홍콩)이 미국·일본·대만 등 다른 수출 상위국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했으나 '18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거점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중국(홍콩)이 과반을 차지했으며 이후 약 40% 수준의 비중을 지속
- '21년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설비로의 실리콘 웨이퍼 공급이 늘어나면서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
- (월별) 최근 1년 수출을 기준으로 중국(홍콩) 비중이 40% 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일본·대만 등이 10% 수준에서 경합하는 양상

그림 2-7 주요국별 실리콘 웨이퍼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IITP, KTSPI



## □ 미국 주도의 IPEF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국은 신규 공동체를 추진하는 등 대응

- 미국 주도의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2.5.23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초대 참여국으로 가입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일정 중인 ’22.5.23일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 하면서 IPEF 공식 출범을 선언.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및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13개국이 출범국가로 참여
    - ※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21.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공식 출범했으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기 미국이 탈퇴한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대신 새로운 구상을 모색한 결과 선택한 대안으로 평가
  - IPEF 참가국의 경제 규모(’20년 기준)는 국내총생산(GDP) 34조 6,000억 달러로 전세계의 40.9%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25억 명, 한국과의 교역 규모가 3,89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의 경제 규모를 넘어서는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전망
  - 특히 IPEF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공정무역(디지털 경제 등),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새로운 통상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마련이 주목적으로 향후 규범과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전망
    - ※ 한편 IPEF를 통해 논의하게 될 주요 내용은 중국에 불리한 미래 의제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협상안이 제시될 수도 있는 등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관측

**표 2-3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및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

항목	설명	구분	IPEF	RCEP	CPTPP
추진 방향	•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 및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분야에서 합의안 도출	참가국	13개국 <sup>5)</sup> (출범 참여국)	15개국 <sup>6)</sup>	11개국 <sup>7)</sup>
추진 상황	• ’21.10월 미국이 첫 구상 발표 후 주요국 참여 요청, 5.23일 13개국 참여로 출범	인구 (전 세계 대비)	25억 명 (32.3%)	22억 7,000만 명 (29.7%)	3억 1,000만 명 (6.7%)
예상되는 이점	• 국제적 규범 논의 참여로 국익 도움	GDP (전 세계 대비)	34조 6,000억 달러 (40.9%)	26조 1,000억 달러 (30.8%)	10조 8,000억 달러 (12.8%)
리스크 요인	• 중국과 관계 악화, 노동 및 환경 부담 증가	한국과의 교역 규모 (총 교역 규모 대비)	3,890억 달러 (39.7%)	4,839억 달러 (49.4%)	3,890억 달러 (24.1%)

(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

(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체 비교(’2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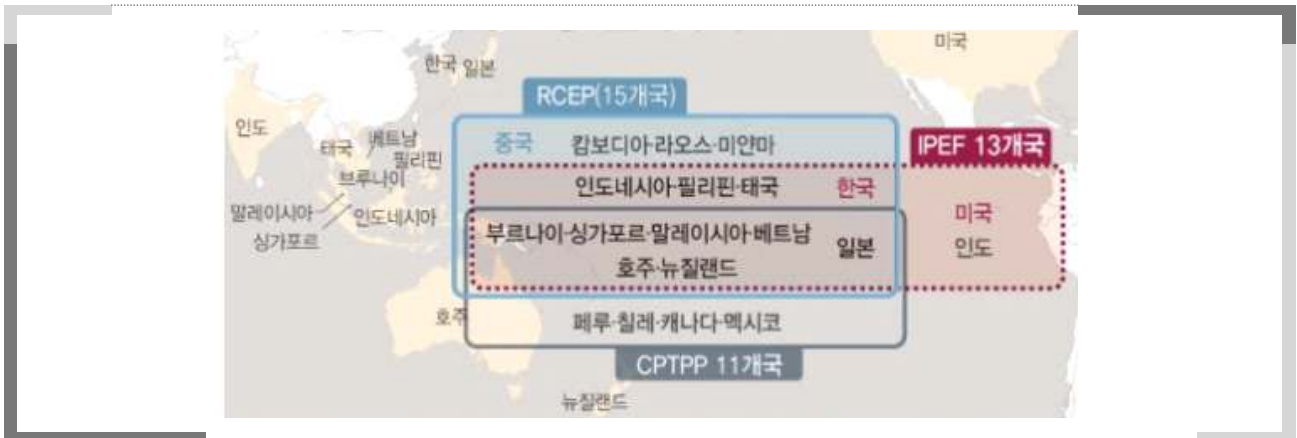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재인용

5)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 및 아세안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6)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및 전체 아세안(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7)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 및 아세안 4국(브루나이·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그림 2-8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협력체 참여국 비교



자료 : 뉴시스 재인용, 2022.5.23.

- IPEF 출범에 대해 중국은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응해 남태평양 국가들과 안보 및 경제 협력 공동체 마련을 위한 행보 관측
  - 중국은 IPEF에 대해 참여국 간 경제협력이 아닌, 미국 중심의 또 다른 세력 형성 및 세계 공급망 시스템에서 자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고의적 배제 전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
    - ※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5.22일 IPEF가 미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라며 중국을 배제 및 고립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으며 5.23일에는 냉전적 사고와 일방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비난
    - ※ 또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5.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IPEF를 앞세워 아시아태평양을 진영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화, 냉전화하려고 한다고 IPEF 출범을 강력하게 비판
  - 한편 중국 외교부장은 5.26일~6.4일까지 솔로몬 제도 등 태평양섬 8개국 방문해 남태평양 국가들과 안보 및 경제 협력 초안과 5개년 계획 등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할 예정
    - ※ 본 협정에는 남태평양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지원, 중국-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 중국 시장 접근 등이 제공되며, 중국은 현지 경찰 훈련, 사이버 보안 관여, 정치적 유대관계 확장,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받을 전망
  - 미국은 IPEF 이전에도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을 출범하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 왔으며 중국의 포괄적 개발 비전 구상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
- 한편 우리나라는 IPEF 참여로 미국과의 경제안보동맹 강화 및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 및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우려
  - 한국은 IPEF 창립 멤버로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 등 마련 시 발언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전망
  - 또한 반도체·AI·양자컴퓨터·청정에너지 등에서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와 더불어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
  - 다만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철강·화학 제품 분야에서 중국의 보복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





## □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자산 동결 및 에너지 수입 중단 등으로 러시아 제재를 강화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EU 등 주요국은 자산 동결 및 에너지 수입 중단 등 제재를 강화하며 러시아를 압박
  - (미국)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 국채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지급 상황에 대한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22.5.25일 종료하기로 결정('22.5.24일)
    - ※ '22.2월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및 주요 은행 등과 거래를 전면 중단. 다만 5.25일까지 미국 채권자가 러시아로부터 국채 원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 채무자가 국채 이자 및 원금 상환 시 미국 정부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 중단 유예기간을 설정
  - 외환보유액 6,400억 달러로 세계 4위 외환보유국인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해 EU·영국·캐나다 등의 러시아 자산 동결로 과반이 사용 불가한 가운데 현재 대외 국가채무 규모는 400억 달러로 추정 (로이터 재인용, '22.5.24일)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가 확대
    - ※ 러시아 정부는 미국이 상환을 강제로 막을 경우,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갚겠다는 입장이나 달러 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분 달러 이외의 통화로 상환이 금지되어 있어 루블화로 지불해도 디폴트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이번 조치로 미국 은행이나 투자자들은 러시아로부터 주식 배당금이나 국채 원금과 이자 등을 더 이상 상환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자국 경제 위험도 증가할 전망
  - (EU)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향후 6개월 내 러시아산 원유 공급 및 연내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골자의 對러시아 6차 제재안을 제안('22.5.4일)
    - ※ 이번 제재가 최종 승인될 경우 '22.4.8일 러시아산 석탄 금수조치에 이어 러시아산 에너지 산업을 겨냥한 EU의 두 번째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번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의 완전한 수입 금지가 예상되나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 및 27개 EU 회원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는 상황. 다만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와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약 70%인 슬로바키아는 기존 계약대로 '23년 말까지 수입을 지속하는 등 예외가 적용될 방침
    - ※ 27개국은 이날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며 이르면 5.29일 27개 회원국의 공식 승인이 이뤄질 전망
    -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산 에너지원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투자 비용 등으로 '22년~'27년까지 총 1,950억 유로가 필요할 전망
  - 이와 더불어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차단하고, 이례적으로 러시아 정교회 수장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제안
  - (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22.5.8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결정
  - 아울러 '22.5.20일 개최된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198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향후 우크라이나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 및 정보를 지속 제공하기로 결정

- 서방국의 제재에 대해 러시아는 에너지 및 식량 등을 무기로 대응하며 강경한 기조를 유지
  - 러시아는 '22.4월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신청한 불가리아와 폴란드에 가스 공급을 중단했으며 5.21일에도 같은 이유로 핀란드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
    - ※ 다만 핀란드는 자국에서 사용되는 가스의 대부분이 러시아산이지만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핀란드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약 5%에 불과하며 이를 대체할 방법도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 '22.5.24일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항구를 봉쇄하면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식량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
  - 또한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가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으며 전 세계 어린이들의 굶주림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항구를 다시 열라고 촉구하는 등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를 비난
    - ※ 전 세계 곡물 수출 시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밀 5위, 옥수수 4위, 해바라기씨유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의 밀 공급량은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경향신문 재인용, 원소스 미국 국무부, '22.5.25일)
    - ※ 또한 우크라이나 농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22.5월 곡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4% 감소
  - 이에 대해 러시아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가에 있다고 반박했으며 러시아 외교부는 대러 제재가 재고될 경우에만 우크라이나 항구 봉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
  - 한편 서방국의 러시아 자산 동결 및 미국의 유예기간 연장 불가 조치 등 경제적인 제재에 대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22.5.18일 러시아가 루블화로 채무 상환을 할 것이라며 어떠한 국가에 대해서도 디폴트 선언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

## □ 라우 전쟁,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으로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하향 조정

- (미국) 인플레이션 등으로 '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對중 무역 규제 완화도 고려
  - 골드만삭스는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공급망 붕괴 등으로 '22.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렸으며 '22년 2.6% → 2.4%로, '23년은 2.2% → 1.6%로 하향 조정('22.5월)
    - ※ '22.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3%로 전달(8.5%) 대비 소폭 진정됐으나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
  -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공급망 혼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디스는 향후 24개월 내 경기 침체 발생 확률을 50%로 예상했으며 모건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안에 후퇴할 확률을 종전 5% → 27%로 확대
  -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관련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22.3월 무역수지 적자는 1,098억 달러로 사상 처음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최대치를 기록
  - '22.5.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보복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인플레이션과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





- (중국) 지속된 도시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자국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22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이어 하향 조정
  - 스탠다드차타드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4~5월 생산과 소비에 차질을 빚었다고 평가하며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2.2분기 3.5% → 0.3%로, 연간 5% → 4.1%로 하향 조정('22.5월)
    - ※ 한편 스탠다드차타드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회복되나 강력한 봉쇄 조치가 1달씩 연장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0.6%p씩 감소될 것으로 예측
  - 블룸버그도 '22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6% → 2%까지 하향 조정했으며 골드만삭스도 동기간 4.5% → 4%로 축소하는 등 주요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연이어 하향 조정('22.5월)
  - 한편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22.4월 소매판매(△11.1%)와 산업생산(△2.9%)은 코로나19 전세계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감소. 도시 실업률은 6.1%까지 상승했으며 청년(16~24세) 실업률도 18.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타격이 발생
- (EU) EU 및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의 '2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가파른 물가상승 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대비 대폭 축소
  -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하는 GDP 성장률 전망치 초안에 따르면 '22년 EU와 유로존의 GDP 성장률을 각각 2.7%로 예상했으며 '23년에는 각각 2.3%로 예측(파이낸셜타임스 '22.5월)
  -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22.2월 전망치 발표에서는 EU와 유로존의 GDP 성장률을 '22년 각각 4%, '23년 2.8%, 2.7%로 추정했으나 약 3개월 만에 하향 조정
  - 이는 러-우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럽 물가가 빠르게 성장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
    - ※ EU와 유로존의 물가는 '22년 6%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중부 및 동유럽 국가에서는 두 자릿수의 물가상승률도 우려되는 상황. '23년에는 2.7%로 낮아지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2%)를 넘어설 전망
  - 한편 EU는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등을 논의 중인 가운데 해당 제재가 시행될 경우 러시아의 천연자원 의존도가 높은 유럽 경제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우려
    - ※ EU 집행위원회가 예측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경우 유럽 경제성장률은 '22년 0.2%, '23년 1.3%에 그치며 물가상승률은 동기간 각각 3%p, 1%p씩 올라갈 것으로 전망



# III 부록





### Ⅲ 부록

####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1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217,226	8.8	100.0	469,187	12.2	100.0	1,357,940	11.3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84,065	10.9	70.6	333,223	15.0	71.0	959,435	13.7	70.7
- 전자부품	2,301,413	12.4	44.1	205,926	17.8	43.9	595,527	14.7	43.9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420	16.4	3.3	16,418	18.5	3.5	47,285	28.2	3.5
- 통신 및 방송기기	387,675	3.6	7.4	35,498	18.8	7.6	102,494	13.5	7.5
- 영상 및 음향기기	92,022	10.7	1.8	8,546	24.8	1.8	25,570	26.6	1.9
- 정보통신응용기기	728,536	9.2	14.0	66,835	3.9	14.2	188,557	6.4	13.9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44,815	4.5	16.2	72,415	1.4	15.4	211,824	0.7	15.6
- 통신서비스	374,162	0.9	7.2	31,485	1.0	6.7	93,217	-0.3	6.9
· 유선통신서비스	100,651	-0.6	1.9	8,481	1.4	1.8	25,089	-0.1	1.8
· 무선통신서비스	252,120	1.7	4.8	21,202	0.7	4.5	62,678	-0.6	4.6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1,390	-0.4	0.4	1,802	1.7	0.4	5,449	2.5	0.4
- 방송서비스	202,591	3.2	3.9	18,077	3.0	3.9	52,983	3.8	3.9
· 지상파방송서비스	37,103	8.7	0.7	3,358	7.8	0.7	9,602	12.0	0.7
· 유료방송서비스	71,716	3.6	1.4	6,498	10.8	1.4	19,114	8.3	1.4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93,220	0.8	1.8	8,184	-3.9	1.7	24,134	-2.3	1.8
· 기타방송서비스	554	1.0	0.0	37	-17.3	0.0	133	-0.9	0.0
- 정보서비스	268,062	11.1	5.1	22,853	0.9	4.9	65,624	-0.4	4.8
· 정보인프라서비스	42,542	8.7	0.8	3,864	14.0	0.8	11,385	12.9	0.8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5,520	11.6	4.3	18,989	-1.4	4.0	54,239	-2.8	4.0
○ 소프트웨어	688,346	3.6	13.2	63,550	11.4	13.5	186,682	12.2	13.7
- 패키지 소프트웨어	136,410	3.9	2.6	12,501	10.3	2.7	36,635	15.7	2.7
- 게임 소프트웨어	142,195	0.8	2.7	12,955	2.9	2.8	38,463	7.8	2.8
- IT 서비스	409,741	4.5	7.9	38,094	14.9	8.1	111,584	12.7	8.2

자료 : KEA, KAIT, 2022.5.

## 2 2022년 4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3년	5,596.3	1,726.8	11.2	5,155.9	818.0	4.9	440.5	908.8
2014년	5,726.6	1,762.3	2.1	5,255.1	881.7	7.8	471.5	880.7
2015년	5,267.6	1,728.7	-1.9	4,365.0	913.3	3.6	902.6	815.4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1/4분기	1,464.0	489.5	13.6	1,366.0	309.2	19.0	98.0	180.3
2/4분기	1,567.3	540.8	29.6	1,492.3	319.0	19.1	75.0	221.8
3/4분기	1,645.4	610.4	27.7	1,568.9	340.8	19.1	76.5	269.6
4/4분기	1,767.3	635.4	24.9	1,723.7	381.2	22.0	43.6	254.2
상반기	3,031.3	1,030.3	21.5	2,858.3	628.2	19.1	173.0	402.1
하반기	3,412.7	1,245.8	26.2	3,292.6	722.0	20.6	120.1	523.7
1월	480.1	162.8	21.5	444.6	107.8	22.0	35.5	55.0
2월	447.1	152.6	11.4	424.0	92.0	19.4	23.0	60.6
3월	536.9	174.1	8.9	497.4	109.5	15.9	39.5	64.6
4월	512.3	170.5	32.5	508.9	107.9	21.7	3.3	62.6
5월	507.3	177.3	27.4	479.1	105.2	17.9	28.1	72.1
6월	547.8	193.0	29.1	504.3	105.8	17.8	43.5	87.1
7월	554.6	194.8	30.1	536.8	113.2	14.9	17.9	81.5
8월	531.7	202.3	33.0	515.8	113.9	23.8	15.8	88.5
9월	559.1	213.3	21.1	516.4	113.7	18.9	42.8	99.6
10월	556.6	199.1	21.5	538.5	121.1	18.5	18.1	78.0
11월	603.3	214.9	30.0	573.6	127.7	23.1	29.7	87.2
12월	607.3	221.4	23.3	611.6	132.4	24.3	-4.3	89.0
2022년	2,306.1	816.6	23.7	2,372.2	487.0	16.8	-66.2	329.6
1월	554.5	196.1	20.4	601.9	123.2	14.3	-47.3	72.9
2월	539.8	188.5	23.6	530.9	113.9	23.9	8.9	74.6
3월	634.8	232.6	33.6	636.0	128.6	17.5	-1.2	104.0
4월	576.9	199.4	16.9	603.5	121.3	12.4	-26.6	78.1

자료 : IITP, KTSPI



표 3-3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24.0	100.0	19,937	16.9	100.0	81,656	23.7	100.0
○전자부품	165,059	25.9	72.5	13,988	16.5	70.2	58,621	24.9	71.8
- 반도체	128,699	28.4	56.5	10,897	16.0	54.7	45,434	25.6	55.6
· 메모리반도체	82,431	28.9	36.2	6,380	7.7	32.0	27,394	21.3	33.5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	17.5	4,006	36.5	20.1	15,935	39.3	19.5
- 디스플레이	24,657	19.0	10.8	2,049	22.5	10.3	9,102	29.1	11.1
- 전자관	5	17.1	0.0	1	62.3	0.0	2	18.7	0.0
- 수동부품	2,344	15.4	1.0	183	-9.5	0.9	745	-5.0	0.9
PCB	5,790	15.1	2.5	531	23.3	2.7	2,082	18.9	2.5
- 접속부품	3,338	17.0	1.5	306	6.9	1.5	1,177	6.5	1.4
- 기타전자부품	160	21.0	0.1	13	8.0	0.1	54	7.7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25.0	7.6	1,764	58.0	8.8	6,671	48.6	8.2
- 컴퓨터	2,293	11.3	1.0	90	-44.8	0.5	335	-49.2	0.4
- 주변기기	15,093	27.4	6.6	1,674	75.6	8.4	6,336	65.4	7.8
· 디스플레이장치	745	28.5	0.3	110	125.8	0.6	458	135.0	0.6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14.4	0.2	39	-1.9	0.2	154	7.8	0.2
· 보조기억장치	12,954	28.2	5.7	1,443	91.2	7.2	5,390	70.7	6.6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22.4	7.4	1,616	7.8	8.1	6,189	13.9	7.6
- 통신기기	16,171	22.4	7.1	1,474	1.5	7.4	5,660	7.8	6.9
· 유선통신기기	957	16.0	0.4	102	29.8	0.5	409	46.6	0.5
· 무선통신기기	15,214	22.9	6.7	1,372	-0.1	6.9	5,251	5.6	6.4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24.6	6.1	1,243	0.6	6.2	4,737	3.9	5.8
- 방송용 장비	571	21.6	0.3	143	198.8	0.7	529	193.5	0.6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9.9	1.0	184	-10.8	0.9	782	-0.4	1.0
- 영상기기	1,528	-14.4	0.7	108	-27.1	0.5	476	-9.8	0.6
· TV	1,065	-27.7	0.5	67	-37.9	0.3	313	-17.4	0.4
LCD TV	34	-82.9	0.0	5	86.2	0.0	19	106.8	0.0
TV 부분품	1,014	-13.0	0.4	59	-42.9	0.3	289	-20.8	0.4
· 셋탑박스	22	66.0	0.0	2	3.6	0.0	7	2.2	0.0
- 음향기기	802	-0.1	0.4	73	32.9	0.4	294	19.6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6.4	0.0	3	-10.2	0.0	12	0.8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17.3	11.4	2,385	7.2	12.0	9,394	12.4	11.5
-가정용전기기기	5,709	36.0	2.5	605	28.8	3.0	2,290	35.2	2.8
-사무용기기	427	25.0	0.2	31	-7.6	0.2	98	-19.6	0.1
-의료용기기	2,564	25.6	1.1	229	12.0	1.1	911	17.1	1.1
-전기 장비	11,920	14.2	5.2	1,091	10.0	5.5	4,304	12.6	5.3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15.2	3.9	818	11.9	4.1	3,117	11.3	3.8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4 |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35,024	19.9	100.0	12,131	12.4	100.0	48,699	16.8	100.0
○전자부품	74,610	21.0	55.3	6,948	21.5	57.3	27,880	27.0	57.3
- 반도체	61,719	21.9	45.7	5,693	21.4	46.9	23,063	27.8	47.4
· 메모리반도체	21,579	14.2	16.0	1,984	42.4	16.4	8,466	47.1	17.4
· 시스템반도체	31,479	27.7	23.3	3,012	17.3	24.8	11,746	22.6	24.1
- 디스플레이	3,869	1.3	2.9	448	49.6	3.7	1,743	56.6	3.6
- 전자관	64	14.5	0.0	6	-18.5	0.0	24	12.7	0.1
- 수동부품	2,800	25.6	2.1	227	-4.0	1.9	878	-0.6	1.8
PCB	3,101	31.2	2.3	305	42.1	2.5	1,152	32.1	2.4
- 접속부품	2,518	16.1	1.9	207	-9.2	1.7	803	-6.0	1.6
- 기타전자부품	436	52.0	0.3	54	38.3	0.4	188	53.1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749	24.8	12.4	1,467	7.3	12.1	6,490	12.4	13.3
- 컴퓨터	10,233	28.7	7.6	860	4.0	7.1	4,010	9.2	8.2
- 주변기기	6,516	19.1	4.8	607	12.4	5.0	2,480	18.1	5.1
· 디스플레이장치	1,090	24.4	0.8	116	35.7	1.0	504	35.2	1.0
· 프린터(부분품포함)	963	11.1	0.7	86	1.2	0.7	323	-6.8	0.7
· 보조기억장치	3,243	21.5	2.4	290	10.4	2.4	1,207	22.8	2.5
○통신 및 방송기기	16,362	12.8	12.1	1,221	-10.0	10.1	4,883	-9.2	10.0
- 통신기기	15,815	12.7	11.7	1,150	-12.1	9.5	4,601	-11.5	9.4
· 유선통신기기	2,131	11.2	1.6	145	-14.6	1.2	569	-17.8	1.2
· 무선통신기기	13,684	12.9	10.1	1,005	-11.7	8.3	4,032	-10.5	8.3
휴대폰(부분품 포함)	10,176	12.2	7.5	640	-23.8	5.3	2,721	-19.2	5.6
- 방송용 장비	547	14.8	0.4	71	46.0	0.6	282	56.3	0.6
○영상 및 음향기기	3,915	15.9	2.9	322	-22.6	2.7	1,276	-6.9	2.6
- 영상기기	2,464	14.9	1.8	190	-34.0	1.6	809	-8.6	1.7
· TV	1,891	18.2	1.4	138	-41.3	1.1	604	-15.0	1.2
LCD TV	929	40.0	0.7	63	-29.9	0.5	315	-3.7	0.6
TV 부분품	575	-29.7	0.4	49	-56.4	0.4	179	-32.7	0.4
· 셋탑박스	214	11.0	0.2	14	-6.5	0.1	64	9.2	0.1
- 음향기기	1,099	9.5	0.8	102	1.9	0.8	364	-1.5	0.7
- 기타 영상음향기기	353	52.8	0.3	30	7.1	0.2	104	-11.2	0.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3,388	18.9	17.3	2,173	12.5	17.9	8,169	12.8	16.8
-가정용전기기기	4,560	15.6	3.4	420	-4.2	3.5	1,571	9.1	3.2
-사무용기기	33	2.5	0.0	4	77.3	0.0	12	5.6	0.0
-의료용기기	2,287	4.8	1.7	182	-7.5	1.5	791	6.3	1.6
-전기 장비	8,256	39.8	6.1	878	43.2	7.2	3,172	32.3	6.5
· 일차전지 및 축전지	4,191	66.1	3.1	507	97.6	4.2	1,777	74.1	3.6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5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4월 당월			4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27,608	135,024	92,584	19,937	12,131	7,807	32,957
○전자부품	165,059	74,610	90,448	13,988	6,948	7,040	30,741
- 반도체	128,699	61,719	66,980	10,897	5,693	5,204	22,371
· 메모리반도체	82,431	21,579	60,852	6,380	1,984	4,397	18,928
· 시스템반도체	39,752	31,479	8,273	4,006	3,012	994	4,190
- 디스플레이	24,657	3,869	20,788	2,049	448	1,601	7,359
- 전자관	5	64	-59	1	6	-5	-23
- 수동부품	2,344	2,800	-456	183	227	-43	-133
PCB	5,790	3,101	2,689	531	305	226	930
- 접속부품	3,338	2,518	820	306	207	99	374
- 기타전자부품	160	436	-276	13	54	-41	-13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386	16,749	637	1,764	1,467	298	181
- 컴퓨터	2,293	10,233	-7,940	90	860	-769	-3,676
- 주변기기	15,093	6,516	8,577	1,674	607	1,067	3,856
· 디스플레이장치	745	1,090	-345	110	116	-6	-46
· 프린터(부분품포함)	415	963	-548	39	86	-47	-169
· 보조기억장치	12,954	3,243	9,711	1,443	290	1,153	4,182
○통신 및 방송기기	16,741	16,362	380	1,616	1,221	395	1,306
- 통신기기	16,171	15,815	356	1,474	1,150	324	1,059
· 유선통신기기	957	2,131	-1,174	102	145	-43	-160
· 무선통신기기	15,214	13,684	1,530	1,372	1,005	367	1,219
휴대폰(부분품 포함)	13,994	10,176	3,818	1,243	640	602	2,016
- 방송용 장비	571	547	24	143	71	72	247
○영상 및 음향기기	2,367	3,915	-1,548	184	322	-138	-495
- 영상기기	1,528	2,464	-936	108	190	-82	-333
· TV	1,065	1,891	-826	67	138	-72	-291
LCD TV	34	929	-895	5	63	-58	-296
TV 부분품	1,014	575	439	59	49	10	109
· 셋탑박스	22	214	-192	2	14	-12	-57
- 음향기기	802	1,099	-297	73	102	-29	-70
- 기타 영상음향기기	38	353	-315	3	30	-27	-9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055	23,388	2,667	2,385	2,173	212	1,225
- 가정용전기기기	5,709	4,560	1,149	605	420	185	719
- 사무용기기	427	33	394	31	4	27	86
- 의료용기기	2,564	2,287	277	229	182	47	120
- 전기 장비	11,920	8,256	3,664	1,091	878	214	1,13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8,775	4,191	4,583	818	507	311	1,341

주) SW 및 콘텐츠는 통관기준으로 집계되는 CD 등 저장매체에 기록된 품목에 한정된 수출입 자료임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27,608	24.0	100.0	19,937	16.9	100.0	81,656	23.7	100.0
○ 아시아	176,605	24.7	77.6	14,992	15.6	75.2	63,251	24.9	77.5
- 중국(홍콩 포함)	107,525	23.8	47.2	8,365	4.1	42.0	36,597	19.3	44.8
- 일 본	4,314	10.7	1.9	366	15.5	1.8	1,500	9.9	1.8
- ASEAN	49,033	21.0	21.5	4,515	30.2	22.6	18,570	32.9	22.7
· 싱가포르	4,775	47.8	2.1	611	62.6	3.1	2,213	66.9	2.7
· 인 니	893	14.7	0.4	90	-5.4	0.5	378	23.9	0.5
· 말 련	2,507	19.3	1.1	249	32.0	1.2	932	24.8	1.1
· 태 국	1,354	19.8	0.6	137	5.9	0.7	552	24.5	0.7
· 베트남	35,133	18.0	15.4	3,002	25.8	15.1	12,915	29.2	15.8
- 대 만	12,671	59.6	5.6	1,285	39.8	6.4	4,988	38.3	6.1
- 인 도	2,781	25.2	1.2	415	100.7	2.1	1,474	55.6	1.8
○ 북미	28,776	26.4	12.6	2,761	27.1	13.9	10,036	23.5	12.3
- 미 국	27,947	26.5	12.3	2,672	25.9	13.4	9,660	22.2	11.8
- 캐나다	714	21.2	0.3	77	82.2	0.4	335	75.5	0.4
○ 유럽	15,286	21.6	6.7	1,556	19.5	7.8	5,892	21.1	7.2
- 유럽연합	12,771	22.8	5.6	1,342	23.2	6.7	5,013	24.4	6.1
· 독 일	3,522	21.9	1.5	327	6.8	1.6	1,217	6.1	1.5
· 프랑스	844	41.9	0.4	98	39.0	0.5	346	46.6	0.4
· 이탈리아	469	43.0	0.2	64	23.9	0.3	212	35.5	0.3
- 영 국	1,044	23.5	0.5	138	46.4	0.7	443	17.4	0.5
- 러시아	791	9.1	0.3	19	-72.7	0.1	217	-11.2	0.3
○ 중동	1,593	-5.2	0.7	132	-17.8	0.7	566	-0.2	0.7
- 사우디	228	-4.0	0.1	16	-4.4	0.1	90	21.5	0.1
- UAE	493	-13.4	0.2	36	-29.3	0.2	160	-16.9	0.2
○ 중남미	4,304	13.1	1.9	393	11.6	2.0	1,551	5.9	1.9
- 브라질	1,457	0.5	0.6	124	3.6	0.6	533	-3.9	0.7
- 멕시코	2,511	19.4	1.1	245	19.5	1.2	916	14.2	1.1
- 칠 레	120	49.5	0.1	4	-68.4	0.0	30	-26.5	0.0
○ 대양주	721	1.4	0.3	70	-1.8	0.4	269	21.3	0.3
- 호 주	618	-2.5	0.3	62	2.1	0.3	237	23.5	0.3
○ 아프리카	309	10.1	0.1	33	16.6	0.2	89	-17.0	0.1
※ 브릭스	82,033	22.0	36.0	6,974	15.8	35.0	30,663	30.1	37.6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감률	비중	4월 당월			4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35,024	19.9	100.0	12,131	12.4	100.0	48,699	16.8	100.0
○ 아시아	112,900	21.6	83.6	10,625	17.4	87.6	41,195	18.1	84.6
- 중국(홍콩 포함)	59,700	23.8	44.2	4,480	-0.5	36.9	20,231	14.1	41.5
- 일 본	11,978	14.9	8.9	981	-1.6	8.1	4,091	7.2	8.4
- ASEAN	23,339	13.5	17.3	1,998	-7.4	16.5	8,694	11.5	17.9
· 싱가포르	4,079	3.5	3.0	231	-44.7	1.9	1,276	-4.9	2.6
· 인 니	925	94.8	0.7	61	-28.5	0.5	280	-5.9	0.6
· 말 련	3,601	9.9	2.7	323	7.1	2.7	1,254	6.1	2.6
· 태 국	2,007	29.9	1.5	178	3.0	1.5	711	7.4	1.5
· 베트남	11,177	14.7	8.3	1,072	0.7	8.8	4,620	20.2	9.5
- 대 만	17,770	31.6	13.2	1,770	27.3	14.6	6,753	23.1	13.9
- 인 도	105	31.8	0.1	12	65.2	0.1	38	43.1	0.1
○ 북미	9,087	8.6	6.7	721	-6.3	5.9	2,861	-4.6	5.9
- 미 국	8,720	8.5	6.5	687	-7.0	5.7	2,728	-5.5	5.6
- 캐나다	246	4.3	0.2	23	29.3	0.2	88	21.6	0.2
○ 유럽	7,925	12.8	5.9	656	5.7	5.4	2,712	14.3	5.6
- 유럽연합	6,880	12.9	5.1	568	4.3	4.7	2,376	15.8	4.9
· 독 일	3,283	11.4	2.4	256	-8.1	2.1	1,111	9.8	2.3
· 프랑스	929	24.0	0.7	71	19.9	0.6	348	50.8	0.7
· 이탈리아	356	1.4	0.3	27	-5.0	0.2	111	-9.0	0.2
- 영 국	562	9.3	0.4	45	19.6	0.4	168	2.7	0.3
- 러시아	25	18.0	0.0	1	-63.8	0.0	7	-21.3	0.0
○ 중동	655	18.6	0.5	35	-24.8	0.3	221	-13.8	0.5
- 사우디	2	53.2	0.0	0	-71.7	0.0	0	-83.3	0.0
- UAE	43	-41.5	0.0	1	-86.0	0.0	3	-81.0	0.0
○ 중남미	985	10.7	0.7	84	5.3	0.7	306	-4.9	0.6
- 브라질	16	42.8	0.0	0	-82.8	0.0	3	-62.6	0.0
- 멕시코	965	11.2	0.7	83	8.7	0.7	303	-3.4	0.6
- 칠 레	1	-25.0	0.0	0	-62.8	0.0	0	20.9	0.0
○ 대양주	115	26.1	0.1	8	-34.4	0.1	30	-13.6	0.1
- 호 주	79	28.4	0.1	8	20.0	0.1	25	5.3	0.1
○ 아프리카	18	-66.0	0.0	1	-49.0	0.0	7	-21.7	0.0
※ 브릭스	58,620	23.7	43.4	4,454	0.2	36.7	19,935	14.0	40.9

자료 : IITP, KTSPI

**표 3-8 |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수출	수입	수지	4월 당월			4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27,608	135,024	92,584	19,937	12,131	7,807	32,957
○ 아시아	176,605	112,900	63,705	14,992	10,625	4,366	22,056
- 중국(홍콩 포함)	107,525	59,700	47,825	8,365	4,480	3,884	16,366
- 일 본	4,314	11,978	-7,664	366	981	-615	-2,591
- ASEAN	49,033	23,339	25,694	4,515	1,998	2,517	9,876
· 싱가포르	4,775	4,079	696	611	231	380	937
· 인 니	893	925	-33	90	61	29	98
· 말 련	2,507	3,601	-1,094	249	323	-75	-322
· 태 국	1,354	2,007	-653	137	178	-41	-160
· 베트남	35,133	11,177	23,956	3,002	1,072	1,931	8,295
- 대 만	12,671	17,770	-5,099	1,285	1,770	-485	-1,765
- 인 도	2,781	105	2,676	415	12	403	1,436
○ 북미	28,776	9,087	19,689	2,761	721	2,040	7,175
- 미 국	27,947	8,720	19,228	2,672	687	1,985	6,932
- 캐나다	714	246	468	77	23	54	247
○ 유럽	15,286	7,925	7,360	1,556	656	900	3,181
- 유럽연합	12,771	6,880	5,891	1,342	568	773	2,637
· 독 일	3,522	3,283	238	327	256	71	106
· 프랑스	844	929	-85	98	71	27	-3
· 이탈리아	469	356	113	64	27	36	100
- 영 국	1,044	562	482	138	45	92	274
- 러시아	791	25	766	19	1	18	210
○ 중동	1,593	655	939	132	35	98	345
- 사우디	228	2	226	16	0	16	90
- UAE	493	43	450	36	1	36	156
○ 중남미	4,304	985	3,320	393	84	309	1,245
- 브라질	1,457	16	1,441	124	0	124	530
- 멕시코	2,511	965	1,546	245	83	162	613
- 칠 레	120	1	119	4	0	4	30
○ 대양주	721	115	607	70	8	62	239
- 호 주	618	79	538	62	8	54	212
○ 아프리카	309	18	291	33	1	32	83
※ 브릭 스	82,033	58,620	23,413	6,974	4,454	2,521	10,727

자료 : IITP, KTSPI



##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0,100	8.1	100.0	1,313	16.0	100.0	12,557	23.5	100.0
○ 전자부품	2,609	7.7	25.8	355	21.1	27.1	3,468	32.9	27.6
- 반도체	1,877	9.0	18.6	260	28.0	19.8	2,463	31.2	19.6
- 디스플레이 패널	244	-5.1	2.4	25	-1.9	1.9	327	33.9	2.6
- 전자관	1	-17.1	0.0	0	19.7	0.0	1	39.3	0.0
- 수동부품	115	38.9	1.1	22	-7.9	1.7	173	49.9	1.4
- PCB	151	3.1	1.5	19	19.1	1.5	209	38.1	1.7
- 접속부품	197	4.0	1.9	25	14.3	1.9	258	31.1	2.1
- 기타 전자부품	24	-2.1	0.2	4	50.1	0.3	36	50.6	0.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24	10.4	20.0	258	18.8	19.7	2,437	20.4	19.4
- 컴퓨터	1,385	15.4	13.7	180	20.8	13.7	1,681	21.4	13.4
- 주변기기	639	1.0	6.3	78	14.4	5.9	755	18.2	6.0
· 디스플레이장치	162	2.7	1.6	24	39.8	1.8	216	33.2	1.7
· 프린터(부품포함)	128	-18.4	1.3	14	4.4	1.1	142	10.2	1.1
· 보조기억장치	174	0.4	1.7	17	0.3	1.3	184	6.2	1.5
· 저장 매체	32	-6.2	0.3	4	22.3	0.3	34	8.3	0.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44	29.4	1.4	18	9.6	1.4	180	25.2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373	0.1	23.5	327	22.1	24.9	2,751	15.6	21.9
- 통신기기	2,265	-0.4	22.4	314	23.9	23.9	2,611	15.3	20.8
· 유선통신기기	498	3.0	4.9	62	16.9	4.7	538	7.9	4.3
· 무선통신기기	1,766	-1.3	17.5	252	25.8	19.2	2,073	17.4	16.5
- 방송국용 기기	108	10.8	1.1	13	-9.2	1.0	132	22.1	1.1
○ 영상 및 음향기기	689	7.8	6.8	71	-10.0	5.4	836	21.4	6.7
- 영상기기	338	4.5	3.3	34	-2.6	2.6	402	19.2	3.2
- 음향기기	234	12.1	2.3	24	-16.1	1.9	269	14.7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6	9.7	1.2	13	-15.6	1.0	165	41.5	1.3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405	15.8	23.8	301	10.0	22.9	3,065	24.5	24.4
- 가정용 기기	909	18.2	9.0	109	4.8	8.3	1,182	22.5	9.4
- 사무용 기기	40	-9.3	0.4	6	30.0	0.4	49	23.1	0.4
- 의료용 기기	162	43.3	1.6	17	14.0	1.3	182	12.5	1.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43	23.3	2.4	26	-9.9	1.9	268	10.5	2.1
- 전기 장비	1,052	10.2	10.4	143	17.9	10.9	1,384	31.6	11.0
· 건전지 및 축전지	241	17.1	2.4	45	61.6	3.4	362	50.0	2.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금액	증가율	비중	12월 당월			연간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742	9.0	100.0	801	13.4	100.0	8,213	20.9	100.0
○전자부품	4,772	11.1	70.8	582	21.2	72.6	5,857	22.7	71.3
- 반도체	4,001	13.2	59.3	506	27.6	63.1	4,977	24.4	60.6
- 디스플레이 패널	296	-6.6	4.4	26	-11.0	3.2	314	6.1	3.8
- 전자관	2	3.6	0.0	0	-22.9	0.0	2	18.3	0.0
- 수동부품	179	22.9	2.7	19	-22.7	2.4	223	24.7	2.7
- PCB	109	-3.3	1.6	12	10.4	1.5	123	13.3	1.5
- 접속부품	181	1.1	2.7	18	1.5	2.3	212	17.2	2.6
- 기타 전자부품	4	-9.8	0.1	0	18.5	0.1	5	11.1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450	6.8	6.7	47	7.2	5.9	531	17.8	6.5
- 컴퓨터	29	-11.1	0.4	5	61.5	0.6	43	49.5	0.5
- 주변기기	422	8.3	6.3	42	3.2	5.3	488	15.7	5.9
· 디스플레이장치	8	7.9	0.1	0	-55.9	0.0	5	-34.3	0.1
· 프린터(부품포함)	56	-14.7	0.8	5	-8.4	0.7	63	12.3	0.8
· 보조기억장치	257	12.6	3.8	25	6.6	3.1	292	13.9	3.6
· 저장 매체	47	9.2	0.7	5	-19.1	0.6	48	1.3	0.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4	19.2	0.8	7	36.9	0.8	80	47.5	1.0
○통신 및 방송기기	473	-0.1	7.0	62	-7.1	7.8	635	24.6	7.7
- 통신기기	448	1.9	6.6	58	-3.4	7.2	575	28.5	7.0
· 유선통신기기	69	5.1	1.0	8	-1.9	1.0	93	34.6	1.1
· 무선통신기기	378	1.4	5.6	50	-3.6	6.2	482	27.4	5.9
- 방송국용 기기	25	-26.0	0.4	2	-36.8	0.3	27	8.3	0.3
○영상 및 음향기기	196	12.0	2.9	26	18.7	3.3	233	18.5	2.8
- 영상기기	148	23.9	2.2	22	20.9	2.7	186	25.6	2.3
- 음향기기	43	-13.3	0.6	3	-1.3	0.4	38	-10.4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5	-15.4	0.1	1	78.1	0.1	8	52.6	0.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50	4.2	12.6	84	-10.4	10.5	958	10.8	11.7
- 가정용 기기	180	-0.6	2.7	19	0.1	2.3	218	12.3	2.7
- 사무용 기기	5	-14.0	0.1	0	-6.9	0.1	4	-2.7	0.1
- 의료용 기기	113	6.2	1.7	13	-10.1	1.6	136	20.5	1.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64	7.8	5.4	34	-17.1	4.3	394	8.2	4.8
- 전기 장비	188	1.5	2.8	18	-6.3	2.2	205	8.8	2.5
· 건전지 및 축전지	71	3.8	1.0	6	-5.2	0.8	74	4.2	0.9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847	12.4	100.0	227	12.8	100.0	460	9.0	100.0
○전자부품	1,013	19.3	35.6	80	20.2	35.4	166	15.7	36.2
- 반도체	776	20.7	27.2	57	14.3	25.2	119	9.9	25.9
- 디스플레이 패널	35	12.4	1.2	3	1.2	1.2	6	3.4	1.2
- 전자관	3	7.1	0.1	0	30.4	0.1	1	9.0	0.1
- 수동부품	38	21.3	1.3	3	28.4	1.4	7	22.2	1.5
- PCB	12	-2.2	0.4	1	8.9	0.4	2	6.4	0.4
- 접속부품	146	16.5	5.1	13	23.0	5.7	26	18.7	5.6
- 기타 전자부품	2	7.0	0.1	0	68.7	0.1	1	52.1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390	9.2	13.7	30	5.1	13.1	63	5.4	13.8
- 컴퓨터	167	9.7	5.9	13	9.8	5.9	27	6.4	5.9
- 주변기기	222	8.9	7.8	16	1.6	7.2	36	4.6	7.9
· 디스플레이장치	15	-0.5	0.5	1	24.4	0.6	3	14.9	0.6
· 프린터(부품포함)	35	3.9	1.2	3	1.4	1.2	5	-5.1	1.2
· 보조기억장치	52	1.8	1.8	3	-19.6	1.3	7	-9.7	1.6
· 저장 매체	72	18.5	2.5	5	6.5	2.4	13	16.5	2.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9	10.7	1.7	4	8.7	1.7	8	6.4	1.8
○통신 및 방송기기	388	12.2	13.6	29	0.2	12.8	59	-4.1	12.8
- 통신기기	347	11.9	12.2	27	4.4	11.9	55	-0.2	12.0
· 유선통신기기	169	4.9	5.9	13	7.3	5.8	27	5.0	5.8
· 무선통신기기	178	19.4	6.2	2	-82.4	1.1	5	-83.6	1.1
- 방송국용 기기	28	15.9	1.0	1	-60.6	0.4	2	-62.6	0.3
○영상 및 음향기기	85	1.3	3.0	8	33.1	3.6	16	26.5	3.5
- 영상기기	33	-1.7	1.2	2	-7.9	1.0	5	-10.9	1.0
- 음향기기	36	-1.6	1.3	3	16.6	1.4	6	8.4	1.3
- 기타 영상음향기기	16	16.2	0.6	1	30.9	0.6	3	29.1	0.6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971	8.2	34.1	79	12.4	35.0	155	7.7	33.7
- 가정용 기기	169	9.2	6.0	13	10.2	5.9	26	2.9	5.6
- 사무용 기기	9	8.7	0.3	1	28.3	0.4	2	14.7	0.3
- 의료용 기기	278	6.1	9.8	22	8.8	9.9	43	7.3	9.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7.3	10.4	22	2.3	9.7	44	-1.5	9.6
- 전기 장비	217	11.6	7.6	18	12.8	7.8	34	5.2	7.5
· 건전지 및 축전지	52	5.3	1.8	4	2.4	1.7	7	-5.6	1.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2월 당월			2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323	19.8	100.0	479	15.6	100.0	1,036	17.9	100.0
○전자부품	1,110	24.2	17.6	86	22.8	18.0	178	21.5	17.1
- 반도체	860	23.7	13.6	59	11.4	12.3	122	10.6	11.8
- 디스플레이 패널	36	18.2	0.6	2	-17.1	0.4	4	-24.2	0.4
- 전자관	3	7.2	0.0	0	-20.0	0.0	0	-13.4	0.0
- 수동부품	42	39.5	0.7	4	32.6	0.8	8	40.2	0.8
- PCB	23	34.0	0.4	2	25.4	0.4	4	25.4	0.4
- 접속부품	139	23.0	2.2	11	15.9	2.4	23	15.1	2.3
- 기타 전자부품	7	44.2	0.1	1	61.0	0.1	1	45.2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70	14.1	24.8	112	10.7	23.3	242	10.5	23.3
- 컴퓨터	983	11.8	15.5	65	4.6	13.7	143	2.6	13.8
- 주변기기	587	18.0	9.3	46	20.7	9.6	99	24.1	9.6
· 디스플레이장치	101	30.0	1.6	9	45.8	1.9	20	42.8	1.9
· 프린터(부품포함)	140	20.1	2.2	11	9.9	2.2	23	11.7	2.2
· 보조기억장치	104	21.6	1.6	7	-10.1	1.5	16	8.0	1.6
· 저장 매체	162	11.6	2.6	13	40.9	2.8	27	42.5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80	10.4	1.3	6	21.5	1.2	13	13.9	1.2
○통신 및 방송기기	1,265	16.2	20.0	84	6.2	17.5	206	18.9	19.9
- 통신기기	1,139	16.9	18.0	80	14.0	16.8	198	26.5	19.1
· 유선통신기기	443	9.6	7.0	31	11.8	6.5	73	22.0	7.1
· 무선통신기기	696	22.2	11.0	3	-92.2	0.7	7	-92.3	0.7
- 방송국용 기기	117	9.1	1.9	2	-71.7	0.5	5	-70.9	0.4
○영상 및 음향기기	462	29.5	7.3	37	23.6	7.7	83	32.0	8.0
- 영상기기	187	16.0	3.0	12	28.7	2.6	26	26.4	2.5
- 음향기기	164	34.0	2.6	12	1.8	2.5	28	12.4	2.7
- 기타 영상음향기기	111	51.6	1.8	7	-15.6	1.5	15	-12.4	1.4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916	22.6	30.3	161	19.3	33.5	328	18.1	31.6
- 가정용 기기	575	26.8	9.1	48	21.5	10.1	100	17.0	9.7
- 사무용 기기	28	15.2	0.4	2	38.4	0.5	5	31.5	0.5
- 의료용 기기	363	16.8	5.7	30	14.3	6.3	59	15.5	5.7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0	11.9	4.7	22	3.5	4.7	45	4.2	4.4
- 전기 장비	651	28.5	10.3	46	1.7	9.6	93	0.3	9.0
· 건전지 및 축전지	161	53.9	2.5	16	50.1	3.3	32	49.7	3.0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06	17.2	100.0	16,527	14.2	100.0	43,269	11.7	100.0
○ 전자부품	90,410	17.4	52.2	8,371	16.9	50.6	22,849	14.8	52.8
- 반도체	54,546	17.5	31.5	4,673	10.3	28.3	13,213	11.7	30.5
- 디스플레이 패널	7,618	4.2	4.4	417	-31.9	2.5	873	-49.8	2.0
- 전자관	287	10.0	0.2	28	11.5	0.2	72	5.4	0.2
- 수동부품	11,593	23.5	6.7	1,022	12.4	6.2	2,843	11.6	6.6
- PCB	3,336	11.7	1.9	338	43.7	2.0	872	23.3	2.0
- 접속부품	12,240	20.5	7.1	1,109	2.4	6.7	2,902	1.8	6.7
- 기타 전자부품	789	51.8	0.5	79	31.5	0.5	223	40.3	0.5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4,224	14.3	8.2	1,406	13.0	8.5	3,573	6.7	8.3
- 컴퓨터	1,040	4.7	0.6	88	6.1	0.5	235	7.2	0.5
- 주변기기	13,184	15.1	7.6	1,318	13.5	8.0	3,337	6.7	7.7
· 디스플레이장치	1,339	16.0	0.8	108	-2.4	0.7	264	-19.1	0.6
· 프린터(부품포함)	9,404	16.5	5.4	929	13.6	5.6	2,336	4.5	5.4
· 보조기억장치	177	-3.9	0.1	15	-32.1	0.1	37	-18.7	0.1
· 저장 매체	1,699	10.7	1.0	203	29.2	1.2	552	42.4	1.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66	10.1	0.3	61	18.7	0.4	149	11.2	0.3
○ 통신 및 방송기기	7,342	12.5	4.2	449	-33.0	2.7	1,068	-38.0	2.5
- 통신기기	4,131	9.7	2.4	416	16.5	2.5	1,006	6.3	2.3
· 유선통신기기	1,071	-2.0	0.6	108	20.2	0.7	282	4.8	0.7
· 무선통신기기	3,060	14.5	1.8	143	-46.5	0.9	344	-49.2	0.8
- 방송국용 기기	2,902	13.3	1.7	0	-99.9	0.0	1	-99.8	0.0
○ 영상 및 음향기기	6,029	13.8	3.5	785	101.7	4.8	1,955	85.2	4.5
- 영상기기	2,379	23.1	1.4	199	11.2	1.2	493	2.9	1.1
- 음향기기	483	8.0	0.3	44	-2.6	0.3	115	-5.0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167	8.6	1.8	262	58.7	1.6	621	36.0	1.4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5,301	18.6	31.9	5,517	10.2	33.4	13,824	8.6	31.9
- 가정용 기기	11,579	18.3	6.7	1,094	-2.8	6.6	2,743	0.8	6.3
- 사무용 기기	416	12.5	0.2	33	-6.8	0.2	93	8.6	0.2
- 의료용 기기	6,656	11.7	3.8	634	9.4	3.8	1,690	9.7	3.9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2,045	22.0	12.7	2,075	5.1	12.6	5,337	5.6	12.3
- 전기 장비	14,605	17.6	8.4	1,542	19.5	9.3	3,651	9.7	8.4
· 건전지 및 축전지	7,746	24.9	4.5	893	30.3	5.4	2,023	13.8	4.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1년			2022년					
	금액	증가율	비중	3월 당월			3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73,331	15.5	100.0	16,342	12.6	100.0	48,169	14.6	100.0
○전자부품	47,567	30.0	27.4	4,971	40.5	30.4	13,775	39.7	28.6
- 반도체	37,305	31.7	21.5	3,613	33.8	22.1	10,060	32.1	20.9
- 디스플레이 패널	1,904	13.1	1.1	175	27.4	1.1	351	-7.9	0.7
- 전자관	127	6.0	0.1	7	-37.4	0.0	28	-23.4	0.1
- 수동부품	1,413	27.8	0.8	142	23.7	0.9	404	36.1	0.8
- PCB	1,620	24.4	0.9	162	20.1	1.0	471	33.6	1.0
- 접속부품	4,505	25.3	2.6	446	16.4	2.7	1,263	22.5	2.6
- 기타 전자부품	692	49.7	0.4	83	47.5	0.5	225	52.1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28,054	0.6	16.2	2,833	9.0	17.3	8,217	6.3	17.1
- 컴퓨터	16,259	-4.0	9.4	1,588	1.7	9.7	4,612	-3.4	9.6
- 주변기기	11,795	7.7	6.8	1,245	19.9	7.6	3,605	22.0	7.5
· 디스플레이장치	1,897	22.1	1.1	162	-3.1	1.0	487	4.6	1.0
· 프린터(부품포함)	3,880	2.3	2.2	436	20.9	2.7	1,204	20.1	2.5
· 보조기억장치	2,450	8.9	1.4	208	-2.9	1.3	655	10.2	1.4
· 저장 매체	1,570	-0.5	0.9	262	114.6	1.6	708	93.7	1.5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998	12.7	1.2	176	1.5	1.1	551	4.6	1.1
○통신 및 방송기기	36,793	16.2	21.2	2,701	-7.2	16.5	9,414	-0.4	19.5
- 통신기기	33,546	16.5	19.4	2,619	0.6	16.0	9,237	7.0	19.2
· 유선통신기기	8,387	8.9	4.8	683	-7.2	4.2	2,268	11.4	4.7
· 무선통신기기	25,158	19.2	14.5	236	-87.4	1.4	806	-87.8	1.7
- 방송국용 기기	2,721	10.1	1.6	14	-94.8	0.1	37	-94.8	0.1
○영상 및 음향기기	12,284	7.9	7.1	1,246	9.8	7.6	3,505	15.1	7.3
- 영상기기	6,839	8.3	3.9	529	-21.9	3.2	1,481	-13.8	3.1
- 음향기기	3,276	3.7	1.9	255	3.7	1.6	801	-0.9	1.7
- 기타 영상음향기기	2,169	13.9	1.3	218	3.3	1.3	527	1.3	1.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48,633	14.2	28.1	4,592	6.0	28.1	13,257	10.9	27.5
- 가정용 기기	15,308	12.3	8.8	1,244	-2.3	7.6	3,589	1.7	7.5
- 사무용 기기	726	0.0	0.4	57	-11.3	0.3	194	-8.8	0.4
- 의료용 기기	7,468	13.7	4.3	743	1.6	4.5	2,061	8.3	4.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9,850	13.4	5.7	908	-4.9	5.6	2,626	1.5	5.5
- 전기 장비	15,280	18.0	8.8	1,407	7.7	8.6	4,071	9.5	8.5
· 건전지 및 축전지	2,857	24.6	1.6	310	36.1	1.9	845	31.3	1.8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095	17.6	100.0	236	14.2	100.0	2,634	25.7	100.0
○ 전자부품	1,606	19.5	76.6	187	16.8	79.5	2,053	27.9	78.0
- 반도체	1,411	21.1	67.3	168	20.1	71.1	1,812	28.4	68.8
- 디스플레이 패널	83	6.8	4.0	7	-25.3	3.0	102	22.5	3.9
- 전자관	0	-6.8	0.0	0	6.6	0.0	0	10.4	0.0
- 수동부품	32	23.1	1.5	4	-0.2	1.5	42	30.5	1.6
- PCB	56	6.7	2.7	6	13.6	2.6	66	17.4	2.5
- 접속부품	22	3.8	1.1	3	19.8	1.2	30	35.7	1.1
- 기타 전자부품	0	-9.6	0.0	0	30.2	0.0	0	24.1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07	19.5	9.9	18	-4.0	7.9	236	14.0	9.0
- 컴퓨터	82	29.4	3.9	7	-3.4	3.0	88	7.8	3.4
- 주변기기	125	13.8	6.0	11	-4.4	4.8	148	18.0	5.6
· 디스플레이장치	6	13.2	0.3	1	-17.4	0.2	7	10.3	0.3
· 프린터(부품포함)	3	-17.6	0.1	0	26.5	0.1	3	24.0	0.1
· 보조기억장치	7	13.4	0.3	1	32.5	0.3	8	11.7	0.3
· 저장 매체	92	20.7	4.4	8	-17.5	3.2	106	15.1	4.0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	-8.9	0.8	2	70.8	1.0	24	38.6	0.9
○ 통신 및 방송기기	110	12.9	5.2	12	27.2	5.0	127	16.0	4.8
- 통신기기	97	15.4	4.6	10	27.9	4.4	112	15.5	4.3
· 유선통신기기	67	22.1	3.2	7	24.9	3.0	78	17.3	3.0
· 무선통신기기	31	3.2	1.5	3	34.9	1.4	34	11.5	1.3
- 방송국용 기기	11	-4.6	0.5	1	27.0	0.6	14	19.5	0.5
○ 영상 및 음향기기	63	5.9	3.0	6	-11.1	2.5	83	31.6	3.1
- 영상기기	58	10.0	2.8	5	-13.7	2.3	76	30.9	2.9
- 음향기기	4	-31.7	0.2	1	23.0	0.2	6	42.8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0	18.9	0.0	0	-7.9	0.0	0	16.3	0.0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110	1.5	5.2	12	12.0	5.1	134	22.6	5.1
- 가정용 기기	22	7.0	1.1	2	10.0	1.0	27	19.5	1.0
- 사무용 기기	6	-13.5	0.3	1	24.1	0.3	7	19.7	0.3
- 의료용 기기	6	7.0	0.3	1	21.0	0.3	7	14.0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6	10.1	1.7	4	-0.5	1.5	43	21.2	1.6
- 전기 장비	40	-6.1	1.9	5	21.7	2.0	51	27.2	1.9
· 건전지 및 축전지	8	-9.1	0.4	1	55.6	0.5	10	19.6	0.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302	39.0	100.0	134	14.2	100.0	1,440	10.6	100.0
○ 전자부품	953	40.9	73.2	100	17.0	75.0	1,076	12.8	74.7
- 반도체	850	40.3	65.3	90	17.9	67.3	957	12.7	66.5
- 디스플레이 패널	19	31.4	1.5	1	-18.2	1.1	19	-4.8	1.3
- 전자관	0	36.9	0.0	0	-9.9	0.0	0	8.5	0.0
- 수동부품	27	48.6	2.1	3	8.0	2.0	34	24.6	2.3
- PCB	31	57.5	2.4	3	25.9	2.6	36	16.3	2.5
- 접속부품	25	44.1	1.9	3	15.6	1.9	28	13.2	1.9
- 기타 전자부품	1	6.0	0.1	0	16.0	0.1	2	45.5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86	43.7	6.6	8	6.4	5.8	92	6.8	6.4
- 컴퓨터	30	36.4	2.3	3	9.3	2.1	34	11.7	2.3
- 주변기기	56	47.9	4.3	5	4.9	3.7	59	4.2	4.1
· 디스플레이장치	6	26.6	0.5	1	32.7	0.6	8	24.5	0.5
· 프린터(부품포함)	4	7.8	0.3	0	-9.9	0.2	4	-10.3	0.3
· 보조기억장치	11	31.5	0.9	1	-38.3	0.6	12	8.2	0.8
· 저장 매체	28	72.4	2.1	2	19.0	1.9	27	-3.0	1.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	52.1	0.5	1	25.1	0.5	8	18.1	0.5
○ 통신 및 방송기기	82	29.0	6.3	8	-15.6	6.3	84	1.4	5.8
- 통신기기	75	28.4	5.8	8	-16.1	5.9	76	1.3	5.3
· 유선통신기기	23	61.1	1.8	2	10.8	1.7	24	4.5	1.7
· 무선통신기기	52	17.8	4.0	6	-23.4	4.2	52	-0.1	3.6
- 방송국용 기기	4	38.6	0.3	0	3.0	0.3	5	4.4	0.3
○ 영상 및 음향기기	25	48.9	1.9	3	27.2	2.1	25	2.8	1.8
- 영상기기	15	38.2	1.2	2	18.9	1.3	17	13.0	1.2
- 음향기기	6	47.4	0.4	1	19.3	0.5	6	-3.4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4	120.3	0.3	0	97.7	0.3	3	-28.6	0.2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155	30.1	11.9	14	20.7	10.8	163	4.9	11.3
- 가정용 기기	37	28.3	2.8	4	17.9	2.8	40	9.0	2.8
- 사무용 기기	2	-5.2	0.1	0	12.9	0.1	2	10.2	0.1
- 의료용 기기	17	36.1	1.3	1	12.9	0.9	15	-8.4	1.1
- 측정 제어 분석기기	65	35.7	5.0	6	27.1	4.2	68	4.8	4.7
- 전기 장비	35	21.9	2.7	4	17.3	2.7	37	7.1	2.6
· 건전지 및 축전지	11	20.8	0.8	1	23.9	0.9	12	11.7	0.8

자료 : Uncomtrade, KITA



## 4

##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19	15,237	-15.0	93,826	-5.4	909	-32.4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19.1/4	3,702	-29.3	21,429	-16.4	150	-38.5
	2/4	4,038	4.8	22,798	-19.0	228	-39.8
	3/4	3,670	-15.0	25,419	-7.1	144	-54.0
	4/4	3,827	-15.2	24,180	33.8	387	-5.1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p	2,449	-42.2	47,741	343.7	92	-56.2
직접구매 (수입)	2019	50,136	-6.4	463,017	2.6	12,892	14.7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19.1/4	13,180	5.2	141,787	38.8	3,107	8.5
	2/4	10,493	-16.3	111,914	13.6	2,975	11.6
	3/4	9,408	-16.9	97,834	-0.9	3,324	24.7
	4/4	17,055	-0.8	111,482	-26.6	3,486	14.5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p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1.1월	177.5	257.0	24.4	29.3	118.2	129.9	45.2	61.0	88.6	100.9	147.8	183.6
2월	171.9	248.4	20.6	24.9	103.4	113.7	43.2	58.3	70.9	81.5	142.1	175.4
3월	195.4	281.9	21.0	24.6	119.4	131.4	50.6	68.3	75.5	90.6	170.4	208.9
4월	189.4	242.9	22.1	25.4	113.9	125.7	50.3	67.0	79.5	95.6	155.4	190.7
5월	207.5	264.9	23.4	26.6	112.8	124.4	54.1	71.6	74.3	89.6	146.8	180.9
6월	231.7	292.9	22.1	24.3	121.6	133.7	50.8	66.9	76.0	92.7	160.8	199.3
7월	227.7	273.4	25.3	27.8	132.6	146.2	51.7	66.2	83.4	101.8	151.1	180.8
8월	244.9	293.1	25.1	28.7	131.4	131.2	48.7	62.4	93.9	114.4	150.6	180.4
9월	256.8	308.7	23.6	28.9	128.2	128.3	56.7	72.5	104.8	130.7	167.6	200.6
10월	230.0	288.9	22.2	29.5	127.8	127.9	52.4	66.9	104.8	129.1	162.5	189.7
11월	251.3	316.8	22.7	31.1	127.2	108.0	56.7	72.4	112.3	132.5	168.8	198.0
12월	261.8	330.2	25.6	35.8	131.4	112.6	65.3	82.6	107.1	126.9	178.4	210.3
'22.1월	224.4	303.6	29.5	42.1	123.8	106.6	30.5	40.0	85.8	102.2	152.0	183.1
2월	219.0	295.1	27.1	39.3	118.7	102.1	26.0	34.3	81.3	99.3	151.4	180.8
3월	272.3	364.7	32.5	47.9	136.7	116.8	26.1	34.6	105.1	128.5	181.1	216.3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1.1월	148.5	207.8	33.7	31.1	119.9	131.6	206.2	214.2	162.3	190.7	148.8	142.8
2월	133.5	186.8	26.4	22.8	101.8	111.1	155.5	160.4	112.7	132.3	136.6	132.1
3월	151.8	212.5	30.5	25.1	130.6	141.6	198.7	206.4	134.4	157.8	162.6	156.9
4월	151.9	206.8	28.7	22.2	123.8	131.3	167.7	174.1	149.6	176.3	135.7	131.0
5월	153.0	210.6	26.4	20.1	132.9	137.5	169.4	177.6	120.6	142.2	136.6	131.8
6월	157.8	217.0	29.7	21.6	132.4	136.1	147.1	149.5	109.6	130.3	140.1	135.1
7월	175.1	235.0	25.5	18.4	134.7	139.5	154.5	156.4	130.3	159.3	139.2	134.5
8월	174.2	233.8	25.3	19.3	139.2	144.5	157.4	159.5	139.8	170.9	131.3	126.1
9월	178.5	239.6	29.7	24.9	138.3	143.6	160.0	161.5	130.9	162.4	126.3	120.9
10월	176.2	239.1	29.9	28.8	141.2	145.9	145.0	146.8	201.2	239.5	135.6	131.1
11월	197.0	269.8	37.0	37.4	155.7	160.7	159.5	161.8	169.9	202.2	146.8	142.3
12월	205.5	281.5	26.3	27.7	146.0	150.1	189.7	192.3	157.4	187.4	165.7	161.7
'22.1월	191.7	268.4	45.3	50.1	137.1	140.7	215.5	219.2	127.0	151.4	135.1	132.2
2월	178.7	250.3	39.8	46.5	120.9	123.9	186.0	189.2	119.9	142.7	130.8	126.6
3월	197.0	276.0	37.8	45.8	138.0	141.7	187.2	192.0	154.5	183.9	150.7	145.9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 ⊙ 사업 책임자 : 문형돈
- ⊙ 과제 책임자 : 강은숙
- ⊙ 참여 연구원 : 조성선, 홍수표, 최동렬, 반치호, 박찬선, 장예지, 김채리
- ⊙ 위촉 연구원 : 최경석, 김은비, 이유리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TP**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정책단 정책분석팀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전화 : (042) 612-8250, 팩스 : (042) 612-8209